



김정은 시대 북중간 상호작용과 향후 전망

홍은정
고려대

표 목차

제1장 서론	6
제2장 북중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5
1. 동맹관계인가, 일반국가관계인가?	
2. 중국의 대북인식과 대북전략	
3. 북한의 대중인식과 대중전략	
제3장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의 상호작용	24
1. 북한 후계체제의 안착 및 중국의 지지와 압박(2012.1-2013.12)	
2. 북한의 대외관계 다변화와 북한의 중국 무시(2014.1-2015.12)	
3.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북중양국의 전략적 협력(2016.1-2017.6)	
제4장 결론	63
1. 분석 및 평가	
2. 합의 및 향후 전망	
[참고문헌]	69
[부록] 로동신문 대중기사 목록(2012.1~2017.6).....	73

<표 1-1> 로동신문 대중국 기사수 (2012. 1~2017. 6)	12
<표 2-1> 북중관계에 대한 학계의 논의경향	15
<표 3-1> 2012년 북중교류 현황 및 주북 중국대사의 활동	34
<표 3-2> 2013년 북중교류 현황 및 주북 중국대사의 활동	40
<표 3-3> 2014년 북중교류 현황 및 주북 중국대사의 활동	47
<표 3-4> 2015년 북중교류 현황 및 주북 중국대사의 활동	51
<표 3-5> 2016~2017년 6월 북중교류 현황 및 주북 중국대사의 활동	60

그림 목차

<그림 3-1> 로동신문 대중기사 증감수와 주제별 구성(2012.1~2012.12).....	25
<그림 3-2> 로동신문 대중기사 증감수와 주제별 구성(2013.1~2013.12).....	29
<그림 3-3> 로동신문 대중기사 증감수와 주제별 구성(2014.1~2014.12).....	41
<그림 3-4> 2013/2014 로동신문 대중/대러 기사증감수 대비도	44
<그림 3-5> 로동신문 대중기사 증감수와 주제별 구성(2015.1~2015.12).....	45
<그림 3-6> 로동신문 대중기사 증감수와 주제별 구성(2016.1~2017.6).....	55

요 약 문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의 종적인 과정을 추적하여 양국관계의 변화와 그 성격을 추적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즉 통시적 접근을 통해 북중 양국이 상대국을 어떻게 인식하면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추구했는지, 어떠한 요인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그 내용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의 지속과 변화의 동학을 읽어낼 수 있으며, 북중관계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1월부터 2017년 6월 현재에 이르는 시기이다.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의 성쇠고락(ups and downs)의 특징으로 크게 3단계의 시기구분을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우는 로동신문, 중국의 경우는 주북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내용을 주된 1차 자료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의 후계체제의 안착과 이에 따른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지와 압박(2012.1~2013.12)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2012년 한 해 북한의 새로운 후계체제에 대한 안정을 희망한 북한과 중국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한 해 동안 북중간 당군정 나아가 민간차원에서 양자교류가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2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북중간 불협화음이 나타나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강한 압박을 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유지를 더욱 원하는 방향에서 양자관계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단계는 북한의 대외관계 다변화와 북한의 중국 무시(2014.1~2015.12)의 시기이다. 이 시기 중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친, 성, 혜, 용을 표방하는 주변국 외교전략에 따라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에 북한은 일본, 러시아 등과 대외관계의 다변화를 통해 대중국 외교를 대체하고자 하였다. 전략적 이해가 상충되면서 이 시기 북중 양국의 정치외교, 경제무역, 사회문화 교류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중국은 2014년 말부터 북한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북중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시기는 첫 번째 시기와 달리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유지를 더욱 희망하는 방향에서 양자간 관계가 전개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단계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북중양국간 전략적 협력(2016.1~2017.6)의 시기이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자, 중국은 핵실험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며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중국은 미중관계 및 한중관계의 악화된 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북한 역시 중국과 전략적 이해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중 양국은 친선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략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북중관계가 전략적 이해관계라는 속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중 양자관계는 북한이 중국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전략을 갖는가, 동시에 중국이 북한에 어떠한 인식과 전략을 갖는가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기존 연구의 시각은 대부분 강대국인 중국의 시각으로 북중관계를 이해하고, 약소국인 북한의 대중인식과 전략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 시기 북중양국의 전개과정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이 중국을 전략적으로 무시하는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북중관계는 이러한 양자의 전략적 이해관계라는 속성에 근거하여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상대국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전략적 토대를 살펴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북 인식과 전략, 북한의 대중 인식과 전략을 동시에 분석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이에 맞는 대중전략과 대북전략을 마련하여 북중 양국의 관계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 북중관계, 상호작용, 전략적 이해관계, 로동신문, 주북한 중국대사관, 북중친선우호, 16자(字)방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

나는 중조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5돐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정부, 조선인민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훌륭한 축원을 보냅니다. 지난 55년간 중조쌍방은 중조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의 원칙과 정신에 따라 서로 지지하고 긴밀히 협조하였으며 두 나라에서의 건설위업을 촉진하고 두 나라 관계의 끊임없는 심화발전을 추동하였습니다. 중조친선은 쌍방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교류와 협조를 촉진시키며 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줄 용의가 있습니다. 조선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발전과 건설을 위한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룡성변영과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축원합니다.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시진핑 -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사이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5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두 나라 로세대 령도자들께서 친히 서명하신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피어린 투쟁의 한길에서 맺어진 친선협조관계를 항구적으로 공고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법률적기초로 되었습니다.

오래 력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중친선을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된 립장입니다. 우리는 중국동지들과 함께 조중친선협조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두 나라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추동하며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나라의 부강변영을 위한 당신과 중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

위의 두 글은 2016년 7월 11일 북중우호협력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북한과 중국이 상호 교환한 축전의 내용이다¹⁾. 축전에서 북한과 중국 모두 양국의 친선을 강조하고 있으며, 양국의 동맹체결 55주년을 축하하며 이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북중간 친선우호협력관계의 모습은 불과 1, 2년 전인 2014년과 2015년의 상황과 대비되는 것이다.

1) 로동신문 2016년 7월 12일 3면.

2014년 9월 북한정권 수립 66주년을 맞아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은 2013년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우호관계를 생략하였고²⁾,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라는 양국관계를 상징하는 16자(字)방침도 삭제되었다³⁾.

북한과 중국 양국관계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일까?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에 대한 일련의 연구는 대체로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유무에 관심을 두는 듯하다. 학계는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유무를 두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근본적) 변화인지 아니면 전술적 변화인지를 두고 열띤 논쟁을 진행하였다⁴⁾. 한편, 북중관계가 기존의 특수관계에서 일반국가관계로 전환되었다는 논쟁이 진행되기도 했다⁵⁾. 일부에서는 북중관계의 성격을 두고, 혈맹이라는 표현으로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중수교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는 양국간의 동맹구조에 변화를 촉발시켰고, 탈냉전기의 북중관계는 냉전시기의 동맹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시각이 대두되었다⁶⁾.

하지만 김정은 시기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북중 양국관계를 고찰해보더라도, 서로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협력을 하기도, 심각한 갈등관계를 이어가다 또 다시 친선우호를 강조하는 양상이 모두 포착된다. 일반적으로 북중관계의 변화만을 강조하거나, 혹은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북중관계를 고찰하게 되면, 북중 양국의 기복(ups and downs)을 정확히 해독할 수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기의 북중관계의 상호작용을 고찰하고, 북중관계의 향후 전망을 하는 것에 있다. 김정은 시기의 북중관계의 전개과정(상호동학)에 나타나는 지속과 변화를 규명하여 북중관계의 성격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중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얻고자 했으며, 반대로 중국은 대북접근을 통해 어떤 국가이익을 얻고자 하였는가? 이 과정에서 북중양국의 입장과 대응은 양국관계에 어떤 방식으로 투영되어 나갔는가? 이와 같은 북중양국의 상호동학

2) 중국이 2013년부터 북에 보낸 축전에는 기존의 ‘형제적 인민’이라는 표현에서 ‘형제적’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으며, ‘김일성, 김정일 및 조선로동당 령도’라는 문구가 ‘조선로동당 령도’로 바뀌었다. 2012년 사용된 ‘조선이 모든 분야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루기를 축원한다’는 문구는 2013년에는 ‘나라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로 바뀌었다. 박동훈 외(2015), pp. 254-255.

3) 중국은 2015년 1월 김정은 생일에 맞춰 축전을 보내면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의 16자(字)방침을 다시 사용하였다.

4)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내에서 북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제시되면서 한국 학계에서는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한 논쟁이 가시화되었다. 당시 중국의 중앙당교의 잡지인 <학습시보> 부편집장인 덩위원은 Financial Times에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그의 글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여부와 관련하여 한국의 언론 및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5) 북중관계를 특수성 위주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국가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음. 김홍규,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박근혜 대통령 방중의 의의”, 『전략연구』, 2013년, pp. 193-225.

6) 정덕구, 『중국의 본심: 이성적 친구, 감성적 타인』, (서울: 중앙북스), 2011년.

을 이해하고자 하는 종합적 분석을 통해 김정은 시대 북중관계의 성격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김정은 시기의 새로운 북중관계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북중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중관계는 냉전시기부터 현재까지 밀월과 갈등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⁷⁾. 따라서 동맹국가이면서 매우 독특한 상호작용을 해오고 있는 북중관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분석해내는 작업은 북한과 중국의 상호작용 행태를 해석하고, 향후 이들 관계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 된다. 북중 양국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향후 동북아정세 예측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정착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김정은 시기(2012년~2017년 6월 현재) 북중 양국의 기복(ups and downs)은 어떤 식으로 출현했고,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김정은 시기 중국과 북한의 양자관계는 어떤 내용(contents), 예를 들어 정치외교, 경제무역, 사회문화 등의 내용으로 구체화되고 있는가?

셋째,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의 동학은 이전 시기의 북중관계와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는가?

넷째, 김정은 시기의 북중관계의 동학은 현재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함의를 통해서 향후의 양국관계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이 절에서는 시간적 범위를 김정은 시기(2012년 1월 ~ 2017년 6월)의 북중관계로 한정하여 기존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이 시기 연구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북중관계를 고찰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⁸⁾. 둘째 북중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여전히 강대국(중국중심) 지향의 시각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⁹⁾. 셋째, 북한의 시각으로 북중관계를 살펴보는 소수의

7)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8) 이영하,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신(新)북핵 정책동향 및 시사점: 4차 및 5차 북핵실험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40권 3호, 2016년, pp. 49-85. ; 홍은정,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미중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19권 4호, 2016년, pp. 75-104. ; 박태홍,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정책의 변화와 원인』,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년.

9) 홍석훈, “중국의 대북한 외교정책 기조와 전략: 중국 지도부의 인식과 정책선호도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7권 1호, 2014년, pp. 123-145. ; 이신욱,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과 동북아 국제관계-북중관계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40권, 2016년, pp. 265-281. ; 박동훈·이성환, “북중관계 변화의 동인과 시진핑 시대의 대북정책”, 『국제정치연구』, 제18집 1호, 2015년, pp. 241-259. ; 이동률, “중국의 대북전략과 북중관계: 2010년 이후 김정일의 중국방문 결과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9권 3호, 2011년, pp. 297-320; 차창훈,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책임대국과 시진핑의 대북정책 딜레마”, 『한국과 국제정치』, 29권 1호, 2013

연구도 있다¹⁰⁾.

이상 기존연구의 특징들은 김정은 시기 북중간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북핵 실험 등과 같은 단선적인 이벤트(사건)중심으로 북중관계를 조명한다면, 북중 양자관계의 배경과 구조에 대한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김정은 시기의 북중 양국관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어렵게 된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긴 시간적 흐름에 따라 북중관계 속에서 김정은 시기의 북중관계를 조명한 연구도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연구는 통일연구원이 2016년 발간한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발전과 평가¹¹⁾』를 들 수 있다. 상기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 시기의 북중 정치외교관계를 2010년 이후의 양국관계의 조정기로 분류하고 있는데, 김정은 시기의 북중 양국의 상호성은 포착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다¹²⁾.

둘째, 중국이든 북한이든 어느 일방의 시각을 중심으로 북중관계를 살펴볼 경우 양국간 상호동학을 온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이 어느 시기에는 협력하다가 갈등하고, 또 다시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함께 행동하는지 양국의 상호인식과 접근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냉전기부터 현재까지의 북중관계는 중국과 북한의 상호 이익과 필요성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북중 양자관계의 변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의 양국의 내/외적 동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중관계를 장기적인 흐름과 관점에서 관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¹³⁾. 김정은 시기의 북중관계의 평가와 전망 역시 통시적 접근을 통해 관계의 흐름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북중관계의 체계적 이해를 통해 합리적인 대북정책 및 대중정책의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년, pp. 51-90. ; 김동준,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요인과 영향력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년. 물론 이들 연구가 북한의 대응과 인식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북중관계를 다루고 있다.

10) 대표적인 연구물로 장용석,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헤징(hedging)전략”,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7호, 2012년, pp. 43-80. ; 장용석, “북중관계의 성격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 『통일과 평화』, 4집 1호, 2012년, pp. 69-99. ; 박용국, “김정은 시대 북핵전략의 딜레마 및 대중정책”, 『중국과 중국학』, 제26호, 2015년, pp. 111-130.

11) 이기현 외,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16년, pp. 1-185.

12)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긴 시간적 흐름 속에서 북중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다음은 참고할 수 있음. 송종규, “북한과 중국의 관계변화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년. 송종규는 냉전시기부터 2013년까지의 북중관계를 통시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는 북중관계를 혈맹형성기(1945-1965), 갈등과 냉각기(1966-1978), 제한적 협력기(1978-1999), 혈맹복원기(2000-2013)로 시기구분하고 있다.

13) 박병광, 『기로에선 북중관계-중국의 대북한 정책딜레마』, (서울: 중앙북스, 2013), p. 109.

제3절 연구의 범위와 자료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과 중국이 어떠한 요인으로 관계의 동학을 보여주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1월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에 이르는 시기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에 나타난 북중관계의 성쇠고락(ups and downs)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계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별 북중양국의 협력과 갈등관계의 상호동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기구분은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의 기복으로 볼 수 있는 특징적 시점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시기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북한 후계체제의 안착 및 중국의 지지와 압박(2012.1.-2013.12), ② 북한의 대외관계 다변화 추진과 북한의 중국 무시(2014.1-2015.12), ③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북중양국의 전략적 협력(2016.1-2017.6) 등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통시적 접근이라는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다. 즉 김정은 시기의 북중관계의 종적인 과정을 추적하여 양국관계의 변화와 성격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시적 접근방법을 통해 북중 양국이 상대국을 어떻게 인식하면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추구했는지, 어떠한 요인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그 내용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나타난 김정은 시기의 북중간 지속과 변화의 동학을 읽어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북중관계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 추적의 방식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1차 자료를 필요로 한다. 양국관계의 상호동학을 증명할 만한 자료의 선택과 수집이 어렵지만, 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중관계는 중국과 북한 모두 자국의 이해관계상 그 정책을 공식화하지 않는 폐쇄성을 특징으로 보여준다. 여타의 지역연구와 달리 북한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공식문헌의 분석방법에서 타당성을 찾을 수밖에 없다¹⁴⁾. 이를 위해 활용가능한 자료는 북한의 경우로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의 자료를 들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인민일보, 신화통신 등 언론매체, 중국외교부 성명, 주북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¹⁵⁾ 등이 자료의 분석대상이 될 수 있다¹⁶⁾.

14) 신정화(2012), p. 179.

15) 주북중국대사관 홈페이지(<http://kp.china-embassy.org/chn/>)는 북중간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제공된 주북중국대사의 활동상황, 연설문 등도 꼼꼼히 읽고 정리하면 북중관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6) 김정은 시기의 북중관계의 내막을 정확히 알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실여부 파악을 위해서 활용가능한 1차 자료를 최대한 많이 참고하여 연구의 객관성 제고를 꾀하려 한다. 필자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북중 양국의 1차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연구에 활용한 연구물은 극히 드물다. 몇몇 연구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1차 자료를 활용한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연구물을 검토한 결과 실제 1차 자료의 활용도는 매우 낮았다. 인민일보와 노동신문을 활용해 북중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음. 정주아, 『북한

1차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시각을 해석해주는 중국의 2차 학술자료(논문, 학술회의 발표문 등) 역시 연구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중국의 2차 자료 외에 미국 또는 한국의 주요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발행된 자료, 언론보도 등을 참조하여 자료의 부족을 극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자료들을 종합화하여 통시적으로 김정은 시기의 북중양국의 상호작용, 지속과 변화의 동학을 읽어 나갈 것이다.

제4절 자료분석의 방법

본 연구가 주되게 다루는 1차 자료는 북한의 경우는 로동신문, 중국의 경우는 주북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의 내용이다. 우선 북한의 1차 자료는 로동신문의 대중(국) 기사물이다. 북한의 1차 자료 가운데 로동신문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의 기관지로서, 조선로동당의 대내외 정책들을 북한주민들에게 선전하여 조직을 동원하며 정책을 전달·관철하는 기본 사명을 갖는다. 따라서 로동신문은 북한 정권의 입장과 정책을 제시하는 자료이며 북한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한 기법으로 로동신문을 분석하고 있다(17).

분석기간인 2012년 1월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로동신문에서 대중국 기사는 총 915편으로 이들 기사물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18). 분석대상을 게재빈도와 연구의 중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① 북중친선우호, ② 인적사회교류, ③ 재중동포관련, ④ 중국동정보도 등 4개의 주제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나눈 4개의 주제분류는 로동신문 기사에서 대중관련 기사에서 다루는 중요성과 기사적 가치에 입각하여 대주제로 분류한 것이다.

각 주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북중친선우호 항목은 로동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 가운데 북중간 친선을 강조한 기사, 당과 수령에 대한 흠모, 축전교환, 중국항일혁명렬사에 관한 기사물을 포괄한다. 둘째, 인적사회교류 항목은 로동신문 기사에서 북한과 중국의 인적 및 사회문화교류 전반에 대한 기사들을 포함한다. 고위급 상호방문뿐 아니라 그 이하 지방정부 차원의 실무자급 방문과 사회문화체육 등의 교류에 대한 기사들이 그것이다. 셋째, 재중동포관련 항목은 로동신문에서 재중동포의 소식과 이들이 주체가 되어 소개되어진 기사물을 대상으로 한다. 넷째, 중국동정보고 항목은 중국지도자에 관한 동정을 소개한 기사, 중국의 당사업 및 사회주의 위업에 관한 소개, 국제정세에 대한 중국의 입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현 후 북중관계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년.

17) 경남대학교(2003), p. 123.

18) 로동신문에서 대중국 기사는 4면과 5면, 6면에 주로 보도된다.

이상의 분류방식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분류가 명확히 되지 않는 기사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북중친선행사에 관한 기사는 북중친선우호의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데, 기사의 내용상 인적사회교류 항목에도 포함될 수도 있다. 이중 적용의 문제를 어떻게 분류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기사의 비중과 내용을 종합판단하여 좀 더 부합한 항목에 기사를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로동신문 2013년 12월 16일자 <위대한 김정일동지 회고모임 중국에서 진행>이라는 기사의 경우, 북중친선우호 항목에 분류될 수도 있고, 인적사회교류의 항목에도 포함될 수 있는 기사이다. 이 경우 김정일 위원장을 추모하는 것이 기사의 주된 내용으로 판단되어 북중친선우호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둘째로 로동신문에 포함된 모든 중국관련 기사를 포함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특히 로동신문의 6면은 주로 국제정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데 중국이 기사 내용의 주체가 되지 않을 경우 분석의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이처럼 본 연구가 상정한 분류방식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하겠으나 이를 최대한 극복하는 노력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주제 분류에 따라 본 연구는 로동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북한의 대중국 인식과 접근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기사분석은 해당시기의 각 기사들을 해당하는 주제별, 연도별로 빈도수를 조사한 후 이를 계량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주제별 빈도수의 변화과정은 시기별 분석대상 일수의 편차를 고려하여 주제별 백분율을 도표화하여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아래 표는 연구시기에 나타난 대중기사의 월별 기사와 연도별 기사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1-1> 로동신문 대중국 기사수 (2012.1~2017.6)

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	20	13	22	2	3	5
2	25	6	32	3	13	10
3	10	8	20	1	1	15
4	52	8	8	7	6	28
5	22	8	15	2	11	9
6	21	8	9	3	8	2
7	32	29	9	2	14	-
8	28	22	1	2	6	-
9	41	17	0	3	15	-
10	40	43	2	16	14	-
11	36	34	1	0	7	-
12	32	18	0	1	14	-
계	359	214	119	42	112	69
백분율(%)	39.23%	23.39%	13.01%	4.59%	12.24%	7.54%

둘째, 중국의 자료는 주북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인민일보¹⁹⁾와 신화통신사²⁰⁾ 기사, 중국 외교부의 성명 등을 1차 분석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는 북중관계의 통시적 접근에 따라 북중관계의 동태적 흐름과 특징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상의 중국의 자료 가운데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의 내용을 주되게 분석하였다.

주북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는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북중간 활동내용과 이들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는 주북한 중국대사의 활동과 대사의 연설문, 주북한 중국대사관의 활동, 중북교류, 북한의 동향, 중국 외교부 성명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내용구성은 중북관계의 개관, 정치관계와 고위급 방문, 북중 양자관계, 북중간 경제무역개관, 과학기술협력과 교류, 문화교류, 교육교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북중 양국의 활동과 중국 및 북한의 동향 등을 근거로 북중관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북중관계의 우호 여부(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내용 가운데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내용으로 처리하고자 하였고, 일부 북중관계와 무관한 내용일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서 획득된 자료는 1년 단위로 활동내용을 정리하였고, 자료의 내용에 따라 정치외교, 경제무역, 사회문화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북중관계의 흐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중양국간 교류 가운데 그 성격이 애매하거나 복합적인 성격인 경우, 교류의 주된 내용을 기준으로 특정의 한 분야로 분류했다. 분석은 북중간 교류의 총합과 교류의 성격에 따라 교류 양상과 그 변화를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주북한 중국대사관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자료의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중국 정부가 중복한 모든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제공하는 내용은 매우 기초적인 것으로 김정은 시기의 북중관계의 맥락을 기초적으로 이해하는 정도의 기능밖에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북중경제 관계의 경우는 정확한 통계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경제무역관계의 개관적 내용만을 매우 짧게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내용을 기초로 시기별 흐름과 특징을 직접 체크하기 위해 인민일보나 신화통신, 환구시보 등의 언론매체의 기사들을 검색하여 김정은 시기의 북중관계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시기에 따라 중국의 입장을 살펴 볼 수 있는 외교부 성명 역시 활용하였다. 이 밖에 중국정부의 시각을 해석해주는

19) 인민일보는 1948년 6월 15일 허베이 성에서 창간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신문 중 하나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행한다. 1949년 3월 본사를 베이징 시로 이전했고, 1949년 8월에는 중국 공산당의 공식 기관지가 된다.

20) 신화통신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 속해있는 통신사이다. 1931년 11월 홍색중화통신사(紅色中華通信社)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37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에 걸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 통신사는 중국 언론매체와 외국 언론사들의 지사에 국내외 정보를 제공하며,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운영된다.

중국의 2차 학술자료 역시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였다. 때에 따라 미국 또는 한국의 주요기관, 정부기관의 자료, 언론보도 등을 참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 북중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동맹관계인가, 일반국가관계인가?

북한은 ‘피로써 맺은 관계(혈맹)’라는 용어로 여전히 북중관계를 표현하고 있다¹⁾. 북중간 동맹조약이 2021년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을 공개²⁾한 바 있는 중국은 3차 북핵 실험 이후 외교부 대변인의 입을 통해 북중관계는 정상적 국가관계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³⁾. 김정은 시기 지난 5년의 북중관계를 고찰하더라도 ‘피로써 맺은 관계’, ‘전통적 친선관계’, ‘정상관계’ 등의 용어가 이들 양자관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했다. 도대체 북중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북중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두고 학계의 논쟁은 진행 중이다. 과거에 비해 결속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중동맹 조약이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북중양국은 더 이상 동맹의 특징을 갖지 않는 일반적인 국가관계로 변화했다는 논의도 존재한다. 전자의 시각은 동북아 세력구도, 이념적 동질성 등 여러 이유로 북중동맹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반면 후자의 시각은 사회주의권의 몰락, 한중수교, 안보위협에 상이한 평가 등을 근거로 북중관계는 더 이상 동맹이 아닌 일반국가관계로 해석하고 있다.

<표 2-1> 북중관계에 대한 학계의 논의경향

학자	논의 및 주장
이종석(2000)	북중관계 점차 동맹적 성격이 잃어지고, 실용주의적 이익에 입각한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임.
Andrew Scobell(2003)	북중관계는 가상동맹에 불과하지만, 조약에 의해서 맺어진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양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파기하지 않을 것임.
최명해(2009)	중국은 북한문제로 약기될 수 있는 한반도 상황의 불확실성을 관리할 능력에 확신이 없고, 또한 미래 한반도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

1) 예를 들어, 로동신문 2013년 8월 28일자 기사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은 영원하리>를 참고할 수 있음.

2) 2011년 7월 11일 중국 CCTV는 북중 우호조약이 1981년과 2001년에 2차례 자동 연장되었고, 2021년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3) 중국 외교부성명, 2013년 3월 8일. http://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1_673025/t1019798.shtml

	해 조중조약은 여전히 유지될 것임.
조영남(2010)	북중동맹이 외부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의미하는 외적기능(external function)이 약화되고 동맹 상대에 대한 상호 견제, 관리를 의미하는 내적기능(internal function)이 강화되는 큰 변화를 강화되는 큰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한 군사동맹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
강정일(2012)	중국과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북중간 동맹은 공고하지 않음. 그 이유는 중국과 한국의 국교체결, 군사와 무기분야의 북중간 교류와 협력이 원활하지 못함, 북핵문제 등의 북한 도발 등임.
나영주(2013)	북중동맹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북아 세력구도에 최소한의 대항균형으로 작동한다는 점과 중국으로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북중간 동맹은 여전히 유지될 것임.
You Ji(2001)	일반적으로 동맹관계는 정치, 경제 및 이념적 동질감을 기초로 유지되는데, 북중 동맹관계는 명시적인 형태로 남아 있을 뿐임.
안인해(2006)	북중 동맹관계는 탈냉전시기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로 변화되었고,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더욱 비관적으로 변화하였음.
장용석(2010)	동맹의 기초인 전략적 이해관계와 안보위협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북중관계는 혈맹이 아닌 전략적·비대칭적 협력관계임.
김홍규(2013)	중국외교의 DNA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기존과 다른 환경, 기준, 정책 우선순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음, 따라서 시진핑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함.
문홍호(2014)	중국은 북중관계를 동맹과 정상관계 사이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추이는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운용을 하고 있음.
박주진·김용호(2014)	제도와 행태 측면에서 북중동맹을 고찰하게 되면, 두 국가의 동맹관계가 실제적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들 논의는 북중간 동맹의 조약은 남아 있지만, 동맹관계의 행태는 보이지 않는 모순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⁴⁾. 북중관계의 성격 규명은 어떠한 논리 구조를 가지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될 것이다. 다만 기존 연구들은 많은 부분에서 강대국의 시각에서 북중관계를 해석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국제정치에서 약소국의 힘이나 전략에 관한 논의, 즉 약소국의 정책과 그로 인해 획득되는 힘에 대한 통찰력을 무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지정학적 위치, 경직된 양극체제, 약소국 정권의 동맹보존의 필요성, 붕괴에 대한 위협 등은 강대국에 대해 약소국이 구사할 수 있는 정책들과 이를 결정짓는 조건 및 요인들⁵⁾에 대해서도 강대국의 정책만큼 분석할 필요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의 북중관계에 대한 설명력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수용하면서 중국과 북한 모두 서로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국의 인식과 전략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정하고 ‘김정은 시기의 북중관계의 상호동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4장에서 연구를 종합정리를 통해 북중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2절 중국의 대북인식과 대북전략⁶⁾

2.1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상위개념인 중국의 대외전략의 기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의 국가목표를 살펴보면,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강대국화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97년 15차 당대회 이후 중국 지도부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언급을 공식적으로 수 십여 차례나 강조해왔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국은 이와 같은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만들어 나가며,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국력 및 위상에 걸맞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대외전략을 가지고 있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시기에 있고, 이를 위해 중국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대외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4) 박주진·김용호(2014), p. 143.

5) 황지선(2014), p. 19.

6) 이 절의 내용은 필자의 논문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Journal of North Studies』, Vol.2 No.2, 2016. pp. 84-88.의 2장의 내용을 간략한 형태로 제시한 것임을 밝힙니다.

으로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투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중국의 대외전략의 기초는 중국어로 维稳维权的 4자(字)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주변국에 영향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변국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영향력과 안정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기조는 상위개념인 중국의 대외전략의 기초에 영향을 받는다. 즉 중국은 한반도 남북한 모두에 영향력을 유지하는 한편, 한반도의 남북한 모두 평화롭고 안정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만약 한반도에 큰 혼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발생한다면 이는 중국의 국가목표인 강대국화 실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남북한 모두 평화롭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한편, 중국은 자국의 강대국화 과정에서 주변국인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반도에 자국의 영향력이 유지되며, 더 나아가 영향력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세력균형의 시각으로 한반도를 사고함을 의미하며, 중국이 아닌 다른 세력권(미국, 일본 등)의 영향력이 한반도에 미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반도의 남북한 양국 모두가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로 남기를 희망한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상황을 원치 않으며 남북한 교류협력이 확대 지속되길 원한다. 또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져 남북한의 안정적 국면이 전개되길 희망하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에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는 차원에서 중국은 남북한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균형정책(등거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시기 들어 중국이 한국정부와 우호관계를 가졌고, 많은 전문가들이 중한관계의 변화를 통해 북중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던 것도,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변화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대한반도 시각을 잘못 이해한 탓이 크다⁷⁾.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경제, 사회, 정치, 군사 등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며 우호적인 중한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호적인 중한관계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중국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북한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북중간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중국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중국은 이를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와 북한 안정을 구가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기조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현상유지로 이해될 수 있다.

7)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음. 仇发华, “新时期中国朝鲜半岛战略调整的变化, 动因与趋势”, 『国际关系研究』, 2014年, 第6期.

2.2 중국의 대북정책 운용 - 우선순위와 대북저선(底線)

중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기존 논의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북정책을 분석하는 데 혼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학계는 중국의 대북정책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비핵화가 우선시된다고 하는가 하며, 다른 쪽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안정이 우선순위(priority)라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대북정책을 우선순위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정책을 분석할 때 중국의 한반도 정책목표인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이해하고 그 하위 정책으로서 대북정책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한반도 정책목표로 하고, 그 하위구조로 대북정책을 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체제의 안정,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북한과의 (최소) 우호적 관계 유지 등이 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책목표로 하면서 한반도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때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 안보환경의 확보와 지역질서에 영향력 획득이라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충족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북한 체제의 안정, 한반도 비핵화 및 비확산 등이 필요로 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불안정(한반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관철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을 수 있다. 중국 6자회담 차석대표인 쉬부(徐步)는“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를 같은 수준에서 중요시하고 있다. 즉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와 한반도의 비핵화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중국 고위급 인사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이 한반도 사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는 전략적 딜레마 상황을 말해준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중국의 대북정책 운용은 한반도의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 그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학자들의 연구물에 자주 등장하는 한반도 문제에서의 전략적 균형은 한반도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 사이에 대한 전략적 모색(전략적 관리)의 토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중산대학의 웨이즈강 교수는 한반도의 남북한 간의 균형, 북한과 미국과의 균형, 국제적 (제재)의무와 중북 동맹관계 사이의 균형, 국가이익과 이데올로기 사이의 균형 등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4가지 균형(均衡)”을 제시하고 있다. 복단대학의 스위엔화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8개의 균형(均衡)”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대북전략의 운용은 첫째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 사이의 균형, 둘째 북핵과 한반도 업무처리 사이의 균형, 셋째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국의 한미정책 사이의 균형, 넷째 미국에 대한 신형대국

관계와 북한에 대한 전통우호관계 사이의 균형, 다섯째 중한관계와 중북관계의 균형, 여섯째 북한 비핵화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간의 균형, 일곱째 6자회담과 북미, 남북회담간의 균형,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확산과 다른 국가와의 비확산 처리의 균형 등이라고 말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인민대학의 스인홍 교수 역시 중국이 한반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한반도 이해관계 속에서 최대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정책은 결국 어느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거나 할 수 없는 것이다. 스교수는 한반도 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가운데, 중북관계에 탄력적 여지를 만들어 놓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북간 최소한의 관계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에서 반드시 융통성있는 여지(餘地)가 보장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중국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북한 내부경제가 부진하여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며, 북한이 도발하여 전쟁이 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제재를 가하더라도 북한과 최소한의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중국의 대북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다⁸⁾.

이러한 중국의 시각은 중국의 언론지면에도 자주 등장한다.

“북중 우호관계는 중국의 전략적 외교자원이기도 하다. 중국이 강대해지면서 외교카드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북중우호가 아태지역에서 갖는 효과는 아직까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북중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의 대북관계 운영에 있어 주축이 되는 사상이며,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일도 양국 우호의 현실과 최대한 부합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북한에 대해 특수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에게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북한과의 우호관계 유지와 핵무기 개발 반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일은 중국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⁹⁾”

이와 같은 중국학자들의 논의는 중국의 대북정책의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는 중국의 대북정책의 딜레마의 속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대북한 정책이 무엇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없다.

8) 스인홍 교수는 북한이 엄청난 도발로 중국의 중대이익을 해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면 중국은 단독으로 북한을 제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북국은 융통성있는 여지를 두어 북한과의 무역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유엔안보리 체제에서 금지하지 않는 물품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수입을 더 함으로써 북한의 대중태도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을 취할 때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스인홍(2016), p. 19-22. ;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우호관계’가 유지되어야 중국의 외교적 역할과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고, 그래야 한반도 미래 상황 전개를 중국의 페이스에 맞게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명해(2013), p. 139.

9) 환구시보, 2013년 12월 10일. 이기현(2015), p. 12 재인용.

중국은 한반도 문제해결의 3가지 원칙(한반도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반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반도 정책기조 속에서 북핵과 북한문제가 불거질 때, 중국은 한반도의 이해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남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며, 그 가운데 북한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는 것이다. 4차 핵실험과 5차 핵실험 국면에서 중국이 들고 나온 쌍중단(한반도 비핵화와 한미군사연합훈련 중단)은 중국이 북핵문제의 국면을 다시 대화의 국면으로 돌리기 위한 중국방식의 전략적 관리모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북한의 대중인식과 대중전략

3.1 북한의 대외전략과 중국

북한 대외전략의 특징과 그 속에서 중국 변수가 위치하는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주외교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⁰⁾. 냉전시기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소련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이는 소련의 국익에 각국의 국익을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종속되어야 하는 한편, 아시아의 대국인 중국의 지배주의에도 대처해야 했다. 이에 북한은 소련과 중국이라는 두 대국의 지배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주외교를 개발하였다¹¹⁾.

1955년 12월 28일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없애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김일성의 연설문은 북한의 자주외교를 드러낸 공식적인 첫 문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건은 소련과 중국에서 벗어나 '조선식의 주체'를 확실히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¹²⁾. 이러한 주체노선은 당시 북한 정권의 국내정치 및 국제정치 수요에 따른 것이었다. 김일성의 '주체노선'은 내부적으로 1950년대 진행된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연안파, 소련파 등 정적을 제거하고 김일성의 권력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외부적으로 냉전과 1950년~60년대 중소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북한의 외교자원을 극대화하는 방편이 되기도 했다¹³⁾.

김정일은 '선군노선'이라는 전략을 내세워 내부 정치적으로 자신이 가장 의존할 수

10) 임수호(2013), p. 124.

11) 임수호(2013), p. 124.

12) 임수호(2013), p. 125.

13) 김성배(2014), p. 2.

있는 세력인 군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선군노선은 탈냉전 시기 사회주의권의 붕괴, 한소수교 및 한중수교 등 북한을 둘러싼 일련의 국제정치 환경에 적응하고자 핵을 체제 생존을 위한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¹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은 ‘핵경제병진노선’을 국가전략을 내세웠다. 병진노선은 경제건설에 주력하면서도 핵과 인공위성으로 상징되는 자주권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자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새로운 정권 창출에 있어 정치적 정당성 강화라는 국내정치적 수요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¹⁵⁾. 김정은 2012년 4월 15일 경축연설에서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에 있어서 평화는 더 없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합니다¹⁶⁾”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자주권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정은 시기에 들어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최대 유산으로 핵과 인공위성을 들고 있다. 북한은 핵과 인공위성을 대국들 틈에서 자주성을 고수할 수 있게 해준 업적으로 선전할 뿐 아니라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들의 압력이 클수록 자기의 주권을 더욱 확고히 내세워야 하며 자신의 결정한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⁷⁾.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러한 인식은 중국에 대한 경계와 자주성 견지의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

3.2 북한의 대중정책 - 한반도 지정학과 지경학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강대국간 충돌을 설명하는 구조적 변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고 할 것이다. 약소국이 자신을 둘러싼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리적으로 전략적 위치에 있고, 중요한 자원을 갖거나 혹은 그 가운데 하나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약소국에게 안보위협 요인이 되지만, 동시에 반대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¹⁹⁾. 지정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반도는 중국의 국내 및 국제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호’의 역할을 해왔다²⁰⁾. 냉전시기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분쟁사이에서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를

14) 김성배(2014), p. 2.

15) 김성배(2014), p. 7.

16)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5일자.

17) 장용석(2012), p. 91.

18) 장용석(2012), p. 91.

19) 이상우(2011), p. 40 재인용.

20) 박동훈(2015), p. 253.

극대화시킴으로써 두 사회주의 대국의 압력을 희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냉전시기 북한의 중국과 소련의 줄타기 외교가 가능했던 것도 북한의 지정학적 이익을 활용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시진핑 시기 들어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를 지렛대로 삼아 동북아 역내의 주도권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 확대해 나가면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해 나가려고 한다. 한반도의 안정 뿐 아니라 한반도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중국에게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이전보다 오히려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탈냉전 이후 전략적 자원으로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화해 오고 있다. 북한은 자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자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중요성을 이용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북한의 시각은 김정은 시기에든 여전히 로동신문의 지면에도 등장하고 있다.

... 미국은 조선반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이곳을 틀어쥐지 않고서는 아시아대륙을 지배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 유라시아륙에 대한 군사적 포위환을 형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1년 12월 2일 로동신문)

...유라시아대륙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전략적가치는 날로 상승하고 있으며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온 세계에 뻗어있다. 중국은 더 이상 무모하게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2017년 5월 4일 로동신문)

한편, 지정학적 가치와 더불어 2000년대 이후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한반도의 가치는 중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²¹⁾. 이는 한반도가 중국과 주변국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은 과거와 같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 국내의 수요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국의 자원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²²⁾.

21) 관련 논문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음. 김재기,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북중 경제협력", 『한국동북아논총』, 제66호, 2013년, pp. 99-117; 任洪生, "国家战略 经济周期与中朝关系的政治经济学", 『外交评论』, 2016年, 第6期, 22-44页.

22) 이상우(2011), p. 41.

제3장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의 상호작용

제1절 북한 후계체제의 안착 및 중국의 지지와 압박(2012.1~2013.12)

1.1 북한의 인식과 전략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김정은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하게 되었다. 당시 북한정권의 최대 목표는 로동신문의 2012년 1면에 제시하고 있는 신년사“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는 제목에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2년 1월 로동신문은 <겨레의 심장 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아버지(2012.1.2.)>, <민족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모시자(2012.1.2.)>, <천출명장의 위인적 품모 세계를 격동시킨다(2012.1.3.)> 등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김일성과 동급의 위대한 지도자로 섬기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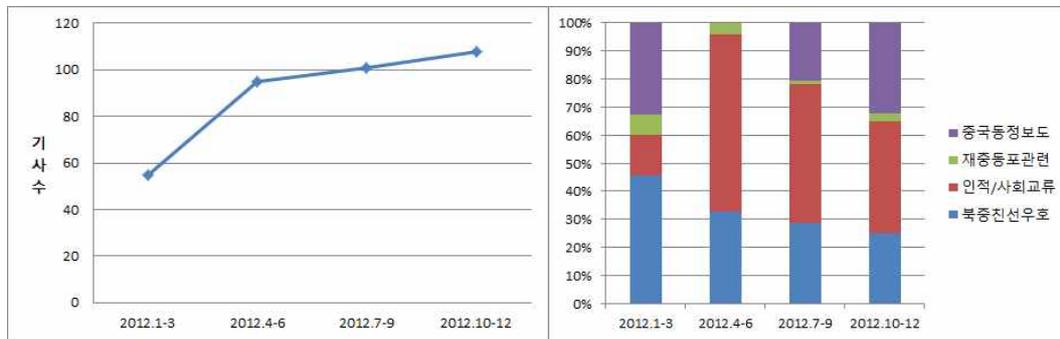
한편 김정일에 이어 북한의 새로운 후계자가 된 김정은을 명실상부한 북한의 지도자로서 내세우는 내용의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또 한분의 선군태양 인류의 앞길 환히 비친다(2012.1.20.)>, <우리 모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받들고 따르자(2012.1.20.)>, <또 한분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 동지를 인류해방의 구성으로 모신 것은 더없는 행운이다(2012.1.20.)>, <백두산 3대장군의 위업을 변함없이, 끝까지 이어가리라(2012.1.22.)>, <우리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여 12월은 결코 빛을 잃은 비애의 달로 되지 않았다(2012.1.22.)> 와 같은 기사를 통해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함께 김정은 후계체제의 새시기로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시기 아버지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이 대를 이어 북한 사회주의 위업을 달성할 지도자로서 후계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북한 정권의 최대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를 경과하면서 북한당국에 있어서 중국은 북한정권의 안착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친선우호국가로 설정되기에 이른다. 2012년 1월 1일 북한의 신년사 가운데 대외관계를 기술하는 내용은 살펴보자.

...지난해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 방문은 세계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사회주의한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당의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을 변함없이 견지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

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 것이다...(로동신문 2012년 1월 1일 2면)

2012년 신년사는 자주, 친선¹⁾, 평화의 순서로 대외정책이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친선’이 전통적으로 북중관계를 의미한다는 점²⁾에서 2012년 초반 북한에게 중국은 후계 체제 구축을 만들어나감에 있어 우호적인 국가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³⁾. 2012년 로동신문 신년사는 중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로동신문에서 대중기사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2년 1사분기(1~3월)는 55편, 2사분기(4~6월)는 95편, 3사분기(7~9월)는 101편, 4사분기(10월~12월)는 108편의 기사가 실렸다.



<그림 3-1> 로동신문 대중기사 증감수와 주제별 구성(2012.1~2012.12)

대중기사의 주제별 구성을 살펴보면,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북중친선우호에 대한 기사의 분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만민의 존중을 받으시는 김정은동지, 중국출판보도물의 글(2012.1.2.)>, <자애로운 그 영상 못 견디게 그리워,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2012.1.6.)>,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정일동지는 영생하실 것이다(2012.1.10.)>,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잊을 수 없다. 중국항일혁명렬사,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가족들 높이 칭송(2012.1.13.)> 등과 같은 기사를 통해 중국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영생을

1) 2012년 1월 1일 신년사에 나타난 ‘친선’의 의미를 로동신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자주성과 국제적정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와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라고 해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우리 나라를 존중한다면 그들과도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려는 것이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새해공동사실이 밝힌 친선의 리념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로동신문 2012년 1월 9일 6면)

2) 임수호(2013), p. 130.

3) 2011년 신년사는 자주, 평화, 친선의 순서로 대외정책이념을 밝히고 있다.

기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북중친선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김정은 동지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이 강성번영을 이룩하기를 충신으로 축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별전권대사(2012.2.17.)>,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2012.4.15.)> 등과 같은 기사물을 통해 북한의 새로운 정권을 중국이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대외관계에서 '자주'기치를 표방하는 북한이지만 새로운 지도체제로 들어선 상황에서 중국과의 친선우호관계가 필요한 상황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북한과 중국은 실제로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당국 및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나가면서 친선우호관계를 보여주었다.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인적/사회교류에 관한 기사의 분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북중간 인적/사회교류의 광범위한 교류가 있음을 보여준다. 2012년 한 해 북중간 당·군·정 뿐 아니라 사회문화체육, 과학기술 나아가 민간차원의 교류까지 전방위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중국인민해방군 방북(4월), 조선로동당대표단 방중(4월),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간 전략대화(4월),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대표단 방북(4월), 조선청년동맹대표단 방중(5월), 중국국제우호연락친선대표단 방북(5월),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대표단 방북(5월), 중국전국부녀연합회대표단 방북(6월), 조선인민보안부대표단 방중(7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대표단 방중(7월),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대표단 방북(8월), 중국민정부대표단 방북(10월), 중국공산당대표단 방북(11월) 등 북중간 당·군·정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민간차원의 교류도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⁴⁾.

2012년 7월 27일 최룡해 당정치국 상무위원겸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조선해방전쟁승리 59돛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한국전쟁 당시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과 한 전호속에서 피흘리며 생사고락을 같이하였으며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국제주의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었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⁵⁾. 중국과 북한 양국은 새로운 시기에 접어든 북한정권의 안정에 대한 공유된 이해 속에서 전반적인 협력기조를 이루어 나갔고, 이에 대해 로동신문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2012년 하반기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지속되었다. 이 기간 로동신문은 북중친선관계를 강조하고, 인적/사회 교류도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⁶⁾.

4) 2012년 민간차원의 교류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정리된 로동신문 대중기사 2012년 목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5) 통일뉴스 2012년 7월 29일자.

6) 2012년 하반기 북중간 주요한 인적사회교류는 다음과 같다. 김정은, 왕자루이 접견(2012년 8월), 후진타오, 장성택 접견(2012년 8월), 원자바오, 장성택 접견(2012년 8월), 중국외교부부부장 푸잉, 북한청년외교

<조중친선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재부(2012.7.11.)>, <조중친선의 회원속에 꽃피난 또 하나의 감동깊은 소행(2012.9.23.)>, <깊은 역사를 가지고 강화발전하는 조중친선(2012.10.6.)>, <조중친선은 영원할 것이다(2012.11.6.)> 등과 같이 2012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북중친선을 강조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로동신문 2012년 10월 6일자 6면에 실린 <깊은 역사를 가지고 강화발전되는 조중친선>이라는 기사물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오늘은 우리 인민과 중국인민에게 있어서 의의깊은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49년 10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이것은 조중친선관계 발전에서 역사적 계기로 되었다...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중국인민과 굳게 손잡고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이며 두 나라 로세대혁명가들이 물려준 귀중한 유산이며 공동의 재부인 조중친선을 계속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친선은 영원히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변함없이 계승되고 강화발전될 것이다.

2012년 후반기에 들어 로동신문 지문에 중국동정에 대한 보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12년 8월 한 달의 기사 목록에서 중국동정에 대한 보도는 다음과 같다.

-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창건 85돐 기념(2012.8.4.)>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당외인사들과의 좌담회 마련(2012.8.5.)>
- <중국외교부 대변인 미국의 제재조치 비난(2012.8.6.)>
- <중국국무원총리, 큰물 태풍피해방지사업을 잘할 데 대하여 강조(2012.8.10.)>
- <중국에서 당제18차대회준비사업 적극 추진(2012.8.19.)>

2012년 로동신문에서 중국동정보도 항목을 보면, 기사를 통해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사업 등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이 수행해야 하는 당 및 정부사업과 연계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동신문 2012년 8월 13일 1면에는 <큰물피해복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의 기사가 실렸는데, 3일 전인 8월 10일자 6면에 <중국 국무원총리, 큰물태풍피해방지 사업을 잘 할 데 대하여 강조>라는 기사를 실고 있다. 이는 중국의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수행을 보도하고, 북한의 당사업도 같은 방향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대표단 접견(2012년 10월), 김정은, 중국중앙정치국위원 리지엔궈 접견(2012년 11월) 등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과 북한은 양국의 전략적 이해를 같이 하며 친선관계를 이어나갔다. 특히 중국은 북한정권의 안정을 지원하고, 북한체제의 연착륙(경제무역 등의 활동지원과 교류사업) 등의 활동전개 등을 통해 대북협력을 이루어나갔다. 2012년 11월 제18차 당대표대회를 통해 당총서기에 오른 시진핑은 11월 30일 정치국위원 리진엔귀를 특사로 파견하여 김정은에게 친필서한을 전달하는 등 관계유지를 이어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날인 12월 1일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하고⁷⁾, 12월 12일 이를 실제 행동으로 실행하였다. 2013년 1월 23일 중국은 유엔안보리 2087호 대북제재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북한에 불만을 표출하였다. 당시 중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 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로동신문은 1월 24일자⁸⁾와 25일자⁹⁾ 1면 기사를 통해 '용기와 책임감이 없는 겁쟁이'라며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우리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방편으로 리용되는 <결의>들이라는 것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보편적인 국제법들을 어기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을 추구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맹종 맹동한 결과로 빚어진 산물이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나 책임감도 없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겁쟁이들의 비렬한 처사이며 그로 인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날로 위태로워지고 있다. (로동신문 2013년 1월 24일)

(중략)...미국에 고분고분하면 그 무엇이든 싸울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평화적우주리용권 조차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이종기준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저들의 이번 조치가 공정성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나 책임감도 없이 미국에 맹종맹동한 것이야말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비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로동신문 2013년 1월 25일)

북한은 유엔대북 제재결의안이 통과하자,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고 긴장의 수위를 높여나갔다. 한반도 안정을 원하는 중국은 6자회담과 같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왔으나, 북한은 9.19공동성명과 6자회담 사멸 및 정전협상의 백지화 등을 선언하였고, 핵실험의 가능성까지 나타냈다¹⁰⁾. 2012년 12월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은 2013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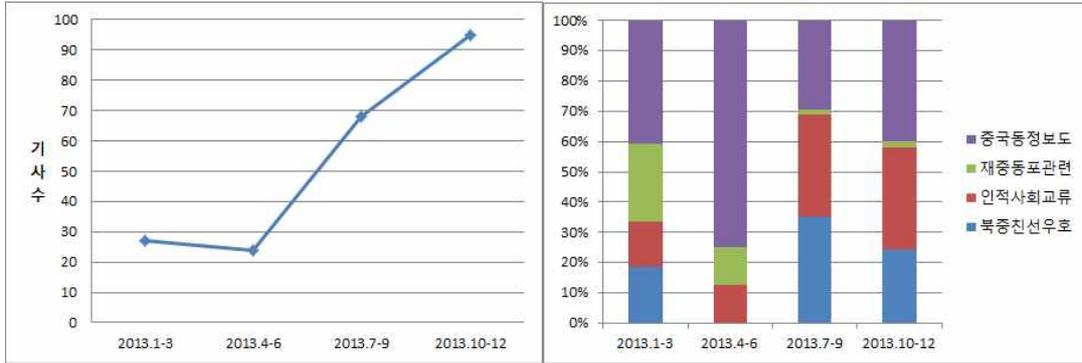
7) 북한은 같은 날인 12월 1일자 1면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는 기사를 1면 전체기사로 내보내고 있다.

8) 2013년 1월 24일 1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9) 2013년 1월 25일 1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포악한 적대적 조치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유엔안보리사회는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10) 박동훈(2015), p. 255.

12일 3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자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취해 나갔다.



<그림 3-2> 로동신문 대중기사 증감수와 주제별 구성(2013.1~2013.12)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로동신문에서 대중기사는 27편에 불과하였다. 이는 2012년 4사분기(10월~12월)의 108편이었던 것에 비하면 큰 격차를 보여주는 것이다. 2013년 2사분기(4월~6월) 역시 대중기사는 총 24편으로 1사분기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2013년 대중 기사의 주제별 구성을 살펴보면, 3차 핵실험으로 북중간 갈등이 초래된 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 북중친선우호, 인적사회교류 기사의 비중은 작은 반면, 중국동정보도와 재중동포관련 기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1월과 2월 중국동정기사는 다음과 같다.

<호금도 주석의 신년사(2013.1.2.)>

<습근평총서기 빈곤구제 및 개발사업에 대해 언급(2013.1.10.)>

<습근평총서기 정법사업을 잘할데 대해 강조(2013.1.13.)>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산하조직들 모임진행(2013.2.4.)>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무국장 담화발표(2013.2.5.)>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표단 도착(2013.2.15.)>

이상의 기사물을 통해 볼 때, 2013년 3차 핵실험을 전후하여 북한은 인적사회교류나 북중친선우호에 대한 기사보다는 단순한 중국의 동정을 전달하거나 재중조선인의 활동이나 이들의 담화, 성명 등을 담은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중국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차 핵실험 이전과 다른 북중관계의 전개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로동신문의 대중기사물은 2013년 3사분기(7월~9월)는 68편, 4사분기(10월~12월)는 95편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하반기 로동신문 대중국 기사의 내용면에서도 북중친선우호와 인적사회교류에 관한 기사들이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당시 북한의 대내외적 정치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2월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을 받는 가운데,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갈 데 대하여”라는 이른바 ‘병진노선’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정권이 안착되어야 하는 시기였는데 3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당국의 강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시진핑 정부 들어 중미관계의 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당시 남북관계 역시 북한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러한 대외환경에서 최룡해 특사의 방중(5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6월)¹¹⁾, 박의춘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부장과 회견(7월) 등이 이어지면서 북한은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희망하였다. 이 가운데 로동신문은 7월에 들어 다시 북중친선우호를 강조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북한은 2013년 7월 11일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2돐에 즈음하여 연회를 진행하였고, 이 관련기사는 총 3건으로 2012년 7월 11일의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1돐에 관한 기사가 총 4건과 비슷한 내용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²⁾. 북한은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의 북중친선우호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북중친선우호에 대한 기사는 몇 개월 동안 보도하지 않았지만, 2013년 하반기 들어 북중친선우호에 관한 기사가 많아지는데, 2012년보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북중친선을 더욱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다음의 기사들을 통해 당시 북한이 북중친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6.28-6.22)은 한중정상회담(6.27)을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김계관 제1부상은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외교부전략대화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제1부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라면서 “어떤 형태의 대화든 환영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제1부상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과 연쇄 회동하며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6월 20일 김 제1부상은 북경에서 귀국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해상 무역이 이뤄지고 있는 항구도시 다롄(대련)을 방문하였다. ; 김계관의 방중은 당시 남북당국 회담이 무산되고, 북미회담이 별 성과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측에 요청하여 ‘전략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2) 북한과 중국간 1961년 7월 11일 조중 상호원조조약이 서명된 이후 매년 7월 11일 북한은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에 관해 보도를 한다.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지만 북한은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보도한 것이다. 2013년 7월 11일 로동신문은 참석자들이 북중간 “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이교덕 외(2014), p. 4.

<압록강에 펼쳐진 뜨거운 친선의 화폭(2013.8.3.)>
 <압록강변에 울려 퍼진 중조친선의 노래(2013.8.6.)>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은 영원하리(2013.8.28.)>
 <친선관계발전의 힘있는 추동력(2013.10.6.)>
 <친선관계발전의 추동력(2013.10.12.)>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위훈은 조중친선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하리(2013.10.25.)>
 <세월이 흘러도 더욱 뜨거워지는 친선의 정(2013.11.17.)>
 <친선의 정 뜨겁게 넘치는 대지(2013.11.22.)>
 <중조친선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2013.12.4.)>

한편 인적사회교류에 관한 기사 역시 2013년 하반기 이후 늘어났다. 로동신문의 기사의 내용을 통해 조선기자동맹대표단(6월), 과학백과사전출판사대표단(7월), 정부무역대표단(9월), 조선노동근로자동맹대표단(9월), 조중친선협회대표단(10월), 김책공업종합대학대표단(10월), 조선청년친선대표단(10월), 올림픽위원회대표단(10월), 설계일군대표단(10월), 최고검찰소대표단(10월), 로동신문대표단(10월),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11월) 등 학계, 문화, 체육, 언론, 검찰 등 다양한 북한의 기관 대표단이 중국 방문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하반기 로동신문에 나타난 인적사회교류 기사의 특징은 인적사회교류가 북중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위급(당·군·정 포함)교류는 없었고, 인적사회교류의 방향은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방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중 양국의 상호간 인적사회 교류의 흐름과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당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더욱 원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2013년 로동신문의 대중기사 수의 증감과 그 주제별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 시기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유지가 필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단순 평가보다는 당시 북중 양국의 상호간 동학으로 볼 때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의 친선관계유지가 필요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핵실험 이후 2013년 하반기 들어 북한은 일본과 러시아 등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대외관계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었지만, 이 시기 북한은 자국이 처한 환경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1.2 중국의 인식과 전략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중국은 19일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

을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북한인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표시한다”고 밝혔다¹³⁾. 같은 날 중국외교부는 주변국 대사를 초치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어 당중앙위원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무원 공동명의로 북한에 조전을 보냈으며 “조선인민들이 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김정은 동지의 영도하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전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¹⁴⁾. 그리고 “적절한 시기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하며 북한의 후계체제를 즉각적으로 인정했으며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¹⁵⁾.

이처럼,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자 이에 매우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반응은 중국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에 대한 준비가 이미 준비되어왔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지도부인 김정은 정권의 안착을 위해서도 중국은 힘을 쏟았다. 2012년 2월 중국 외교부 부부장 푸잉은 북한을 방문해 식량원조문제에 합의했고, 북한에 6억 위안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지원했다¹⁶⁾. 2012년 4월 11일 후진타오 주석은 조선로동당 제1서기로 취임한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고,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주북 중국대사관의 홈페이지는 친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조선로동당대표회의가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1서기로 추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내 개인의 명의로 당신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계승하여 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긴밀히 단결하고, 김정은 동지의 영도하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조양국은 우호적인 이웃국가입니다. 중조양국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결연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조선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 중조전통우의를 계속하여 심화시키고, 각 영역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를 원합니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두 나라와 두 당의 노세대 영도자들이 만들고 발전시켜 온 중조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제1서기 동지와 조선로동당의 영도하에 조선인민들이 강성국가를 건설하는데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

13) 중국, 김정일 사망에 깊은 애도(YTN, 2011년 12월 19일) http://www.ytn.co.kr/ln/0104_201112191951140843

14) 中共中央电唁金正日逝世(全文)http://news.ifeng.com/world/special/jinzhengri/content-4/detail_2011_12/19/11426328_0.shtml

15) 中共中央电唁金正日逝世(全文)http://news.ifeng.com/world/special/jinzhengri/content-4/detail_2011_12/19/11426328_0.shtml

16) 박용국(2013), p. 145.

이처럼 중국은 북한의 새로운 후계자와 정권의 안정을 위한 지지를 공식화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후진타오의 축전을 받은 이틀 뒤인 2012년 4월 13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하였다¹⁷⁾. 이에 대해 중국이 항의하자, 4월 14일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 위원장은 공개연설을 통해 "김일성 동지는 대국주의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사회주의혁명을 완성했다"고 발언했다¹⁸⁾.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4일 만에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었는데, 예상보다 강한 톤의 비난문구와 추가제재 등 조치가 포함되었던 것은 광명성 2호 발사 때 중국의 소극적 자세와는 달리 변화된 중국의 입장을 보여주었다¹⁹⁾.

이렇듯, 북한의 일련의 도발로 인해 북중관계에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2년 한 해 동안 북한과 중국은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새로운 정권에 대한 안착에 힘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2년 북중간 고위급 인사의 교류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12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조선로동당대표단은 중국 북경을 방문하였고, 후진타오 주석은 이들을 접견하였다. 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왕자루이가 방북하였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왕자루이를 접견하였다. 한편, 북중양국의 경제적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2012년 8월 조중 공동지도위원회대표단이 방중하였고, 단장인 장성택은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를 각각 만났다. 2012년 11월 말(29일~30일)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가 끝난 후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리지엔귀가 북한을 방문하였다.

2012년 북중관계는 아래 <표 3-1>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실린 북중간 교류 및 주북 중국대사의 활동 등을 살펴봄으로써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주북 대사의 활동과 북중간 교류는 총 72건으로, 항목별로 정치외교 31건, 경제무역 16건, 사회문화 25건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2012년 중국과 북한은 정치외교 뿐 아니라 경제무역, 공연, 체육 등 사회문화에 이르는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2012년 북한의 로동신문에서 당·군·정 차원에서 상호간 지원과 교류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를 보여주는 기사들 과도 일치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7) 북한은 은하 3호를 발사한 같은 날인 4월 13일자 1면에 후진타오의 친서를 배치하고 소개하고 있다. 관련기사는 로동신문 2012년 4월 13일 1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축전을 보내왔다>, 로동신문 2012년 4월 13일 1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를 참고할 것.

18) 임수호(2013), p. 131 재인용.

19) 김성배(2014), p. 8.

<표 3-1> 2012년 북중교류 현황 및 주북 중국대사의 활동²⁰⁾

일시	활동내용	비고
2012년 1월 1일	후진타오주석, 김정은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축전	정치외교
2012년 1월 11일	조선가극<량산백과 축영대>중국 공연	사회문화
2012년 1월 18일	북한정부, 중국주북한대사관참사관에게 훈장수여	정치외교
2012년 1월 20일	조선가극<량산백과 축영대>방중보고	사회문화
2012년 2월 17일	류홍차이대사, 김일성광장헌화 및 김정일탄생70돌기념	정치외교
2012년 2월 25일	중국조선반도사무특별대사 우다웨이와 북한외무성제1부상 김계관 회견	정치외교
2012년 2월 25일	외교부부부장 장즈권, 북한외무성제1부상 김계관 회견	정치외교
2012년 2월 27일	중국외교부외상 푸잉, 북한 방문	정치외교
2012년 2월 29일	류홍차이대사, 북한중앙미술전시회 관람	사회문화
2012년 3월 5일	주북한대사관부녀자소조, 북한미술박물관 참관	사회문화
2012년 3월 7일	류홍차이대사, 북한농업과학원 참관	사회문화
2012년 3월 8일	류홍차이대사, 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가 거행한 3.8절기념공연 관람	사회문화
2012년 3월 14일	주북대사관외교관, 중조합작영광가구회사 참관	경제무역
2012년 3월 19일	중국한반도사무특별대사 우다웨이와 북한외무성부상 이용호 회견	정치외교
2012년 3월 26일	중국국무원화교담당대표단, 북한방문	정치외교
2012년 4월 4일	주북한대사관외교관, 우호탑과 지원군열사묘 헌화	정치외교
2012년 4월 10일	류홍차이대사, 시집'친선송가'발행식 참석	사회문화
2012년 4월 11일	후진타오, 김정은조선로동당제1서기 축전	정치외교
2012년 4월 11일	류홍차이대사와 대사관일행, 만경대 헌화	정치외교
2012년 4월 11일	류홍차이대사, 북한 제28차"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참석	사회문화
2012년 4월 13일	중국문화부와 북한문화성, "광시미술전람회"공동개최	사회문화
2012년 4월 14일	조선로동당중앙서기 김기남, 중국외교국방문대표단 접견	정치외교
2012년 4월 15일	김일성탄생100주년 중앙보고회, 류홍차이 등 중국사절단 참석	정치외교
2012년 4월 16일	주북대사관, 중국광시미술전화가 초대	사회문화
2012년 4월 16일	북한, 중국외교담당자에게 우의훈장과 상장을 수여	정치외교
2012년 4월 20일	조선로동당중앙정치국후보위원 김영일 방중, 후진타오	정치외교

20)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온 2012년 북중 교류활동의 주된 내용을 필자가 정리함.

	접견	
2012년 4월 23일	전국정협부주석, 북한방문	정치외교
2012년 4월 27일	조선주재 중국기업협회 설립대회, 평양에서 개최	경제무역
2012년 5월 14일	제15회북한봄국제상품전람회 개최, 중국관개관 연회	경제무역
2012년 5월 28일	조선가극 <꽃파는 처녀> 중국공연	사회문화
2012년 5월 28일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대표단, 북한방문 <협력양해비망록>체결	경제무역
2012년 6월 5일	북한로동당중앙정치국위원최태복, 중국부녀자대표단 회견	정치외교
2012년 6월 27일	중조합작영화 <평양의 약속>시사회, 평양개최	사회문화
2012년 7월 11일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1주년 연회개최	정치외교
2012년 7월 11일	제5회 세계중학생중국어대회, 북한에서 거행	사회문화
2012년 7월 12일	양제츠, 북한외무상 박의춘 접견	정치외교
2012년 7월 13일	은행기업협력좌담회, 단동에서 거행	경제무역
2012년 7월 23일	류홍차이대사부부, 평양창전거리 참관	사회문화
2012년 7월 24일	명젠주, 북한인민보안부부장 이명수 회담	정치외교
2012년 7월 25일	류홍차이대사부부, 룡라인민유원지준공식 참석	정치외교
2012년 7월 31일	주북한대사관, 중국인민해방군 창건85돐 연회	정치외교
2012년 8월 2일	조선로동당최고령도자 김정은, 왕자루이 접견	정치외교
2012년 8월 6일	주북대사관, 평양기계설비전람회개막식 참석	경제무역
2012년 8월 10일	중국주북한대사관, 북한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참관	사회문화
2012년 8월 14일	중조경제개발협력위원회 제3차회의 북경에서 개최	경제무역
2012년 8월 20일	후진타오, 중조경제개발협력구 조선방문단(장성택) 접견	정치외교
2012년 8월 20일	원자바오, 중조경제개발협력구 조선방문단(장성택) 접견	정치외교
2012년 8월 20일	전바오진 주청진총영사, 나선국제상품전시회 참석	경제무역
2012년 8월 22일	주북대사관, 김일성종합대학 제2차 국제학술토론회 참가	사회문화
2012년 9월 10일	류홍차이대사, 제8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참석	사회문화
2012년 9월 13일	중국출판대표단, 조선인민대학습당 증서	사회문화
2012년 9월 17일	중조“황금평”개발작업 공식출범	경제무역
2012년 9월 19일	류홍차이대사부부, 창전소학교 및 경상유치원 참관	사회문화
2012년 9월 19일	사천성의료단, 북한방문 의료활동전개	사회문화
2012년 9월 20일	제13차 평양국제영화제 개막, 류홍차이대사부부 참석	사회문화

2012년 9월 22일	중국선원의 북한어업인 3명 구조, 북한매체 보도	사회문화
2012년 9월 24일	류홍차이대사, 제8회 평양가을국제상품전람회개막식 참석	경제무역
2012년 9월 24일	중국국가광전총국대표단 북한방문	사회문화
2012년 9월 26일	중조경제구투자설명회, 북경에서 개최	경제무역
2012년 9월 27일	중국주북대사관, 중화인민공화국창건 63돐경축연회	정치외교
2012년 9월 28일	재북중국유학생, 2012년 국경일 및 추석환영 행사	사회문화
2012년 9월 28일	중조경제특별구투자설명회, 북경에서 거행	경제무역
2012년 10월 3일	중국농업부대표단 북한방문, <중조농업합작양해비망록>체결	경제무역
2012년 10월 11일	중국외교부부부장푸잉, 북한청년외교관대표단 접견	정치외교
2012년 10월 16일	제1회 조중무역경제문화관광박람회, 단동개막	경제무역
2012년 10월 17일	류홍차이대사, 농장추수작업 지원활동	경제무역
2012년 10월 18일	류홍차이대사, 함경남도 방문	정치외교
2012년 10월 25일	류홍차이대사, 중국인민지원군참전62주년기념행사	정치외교
2012년 10월 30일	중조나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 현판식	경제무역
2012년 11월 9일	조선로동당, 중국제18차당대회 축전	정치외교
2012년 11월 30일	중국중앙정치국위원 리지엔귀 방북, 김정은 접견	정치외교
2012년 12월 4일	류홍차이대사, 인민대학습당 중국어반졸업식 참가	사회문화

이상의 2012년 북중간 교류를 살펴보면, 중국은 김정일 사망이후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북한체제의 연착륙에 두고 북한과의 협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말 양국관계에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2년 11월 제18차 당대표대회를 통해 당총서기에 오른 시진핑은 같은 달 30일 정치국위원 리지엔귀를 특사로 파견하여 김정은에게 친필서한을 전달하는 등 관계유지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관계유지 노력과는 무관하게 2012년 12월 12일 로켓을 발사하고,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중국 외교부는 당일 성명을 내고“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핵확산 방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수호가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하면서“관련 국가들이 냉정하게 대응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6자회담의 틀내에서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호소하였다²¹⁾. 이러한 중국 외교부의 공식성명은 이전 북핵실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보인 반응은 이전과 분명 다른 일련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핵실험 이후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하였는데, 주중 북한

21) 중국 외교부, 2013년 2월 12일.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북중 국경지대 통관 검색을 강화하였고, 중국 내 북한 대외무역은행에 대한 계좌폐지를 통보하였다. 당시 중국정부는 중국의 4대 국유은행의 북한계좌를 폐쇄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채택에 합의하였고, 결의안 2094호에 대한 엄격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²²⁾.

한편, 중국은 북핵문제를 미국과의 공동책임론이라고 규정하였다. 2013년 4월 13일 양제츠 국무위원은 존케리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북핵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각 관련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이는 모두의 공동책임이다²³⁾”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과거 중국이 북핵문제를 북미간의 문제로 주장하며, 미국이 요구하는‘중국책임론’을 부인하던 때와 분명 달라진 것이었다. 또한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 북한과 정상적 국가관계”라고 표명하였다²⁴⁾. 당시 중국 당국은 내부적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였다. 중국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언론은 북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는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유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²⁵⁾.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변화된 대응이 있자, 2013년 5월 22일 김정은은 최룡해를 중국에 특사로 파견하면서 중국에 유화적 태도를 보였지만, 중국은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방중 사흘째인 2013년 5월 24일 오후가 되어 최룡해는 시진핑과 면담을 할 수 있었다. 주북한 홈페이지에 실린 5월 23일 류원산의 최룡해 접견내용과 5월 24일 시진핑 주석의 최룡해 접견내용을 통해 당시 북중간 이해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2013년 5월 23일 류원산은 최룡해를 접견하며“중조관계를 부단히 공고발전하는 것은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과 함께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인식을 확대하며, 중조관계의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을 추동하기를 희망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지역과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 유관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한다... 이른 시기에 6자회담을 재개하도록 노력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와 실현하고, 동북아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실현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자”고 말하였다.

22) 물론 중국이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이전 핵실험 때와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대북제재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유엔결의안 2094호가 채택된 직후 중국 외교부는“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기 위한 절차”로 규정하면서 6자회담의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당시 리바오둥 UN주재 중국대사도 제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노력을 통해 현재의 긴장국면을 완화하고,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려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이기현(2016), p. 169.

23) 이영학(2013), p. 213

24) 중국 외교부, 2013년 3월 8일. http://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019798.shtml

25) 대표적인 사례로 중앙당교 <학습시보>부편집장인 덩위원은 Financial Times에“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는 한국 학계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최룡해는“김정은 제1서기가 나를 중국방문의 특사로 파견한 목적은 북중관계를 개선하고, 공고히 발전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공동으로 노력하며, 북중관계가 부단히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북한은 경제발전, 민생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희망하며, 평화로운 외부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북한은 중국측이 한반도 안정과 한반도 문제를 대화협상의 기제로 돌리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이 제안한 유관국과 대화를 진전해 나가길 희망한다.”²⁶⁾”고 답하였다.

다음 날인 5월 24일 시진핑 주석은 최룡해를 접견하며“중국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간에 유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6자회담의 재개를 희망하였다. 당시 최룡해는“조선은 중조우호를 매우 귀중히 여기며, 중국과 함께 고위급 왕래와 심도있는 소통, 중조우호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하며,“경제발전, 민생개선, 평화로운 대외환경을 희망하며, 유관국들과 노력하여 6자회담 등과 같은 대화기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였다²⁷⁾. 당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한반도 상황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모습을 보인 반면, 북한은 북중간 관계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희망하는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등을 언급하며 북중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였다²⁸⁾.

중국이 이전과 달리 북한의 핵실험에 강한 반응을 보인 것은,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한 중국 반응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중국은 2013년 1월 23일 한국 대통령 특사단이 시진핑을 접견할 때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반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²⁹⁾. 중국이 볼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3차 북핵 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손상을 받는 상황이었다. 북한은 2012년 개정헌법에 핵보유를 명기하였고,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공식화하였다. 중국이 볼 때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체화해 나갔던 것이었다. 이에 중국은 이전의 핵실험 때와 달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과 함께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³⁰⁾.

26) <http://kp.china-embassy.org/chn/zcwj/t1043451.htm>

27) <http://kp.china-embassy.org/chn/zcwj/t1044502.htm>

28) 류원산과의 접견에서 군복을 입고 나타났던 최룡해는 다음 날 시진핑 주석과의 접견에서는 군복을 벗고 나타났다. 류원산과의 접견에서 6자회담을 언급하지 않았던 최룡해는 다음 날 시진핑 주석과의 접견에서는 6자회담을 이야기하며 대화의 기제가 재개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당시 북한이 처한 환경에서 최룡해 특사 파견을 통해 6자회담까지 언급하며 대화정국을 만들어가는 것에 노력하겠다는 점을 이야기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29) 이춘복(2013), pp. 2-3.

30) 4월 7일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역 및 세계를 혼란으로

3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변화된 대응은 무엇보다 중미관계의 구조적 환경을 고려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2012년 말 공식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3년 3월 9일 양제츠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상호존중, 호혜공영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인 미중관계와 양국상호간 핵심이익과 중대관심을 존중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³¹⁾.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3년 6월과 9월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북한 핵문제를 양국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의제로 논의하였다³²⁾.

중국은 7월 들어 3차 핵실험으로 냉각된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2013년 7월 11일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2주년을 맞아 주북 중국대사관은 연회를 마련하였다. 이후 2013년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공산당정치국위원이자 국가부주석인 리위엔차오가 방북하여 조선전쟁 정전60주년 기념활동에 참가하였고,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다³³⁾. 주북 중국대사관은 2013년 8월 1일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86주년 기념연회를 열었고, 2013년 9월 27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4주년 연회를 거행하였다.

2013년 북중교류 및 주북 중국대사의 활동을 기록한 주북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에 제공된 내용은 총 29건으로 항목별로 정치외교 14건, 경제무역 5건, 사회문화 10건이다. 2013년 주북 중국대사관의 활동은 2012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고, 활동의 내용 역시 2012년과 차이가 난다. 2013년 북중간 정치외교에 관한 내용이 14건인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최룡해과 김계관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박의춘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왕이 중국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렇듯, 북한 고위급의 방문 및 회담은 3차 핵실험 이후 경색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함이었다.

경제무역 5건은 중국대사의 농장방문, 양탄자공장 방문과 같은 민생분야 등에 할애되었는데, 이는 2012년 북중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제무역 활동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2013년 북중관계는 정치외교와 경제무역 영역이 부진한 가운데 북중 양국간 우호를 위한 체육대회, 미식절, 문화교류 집행계획 체결 등 사회문화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다. 사회문화 차원 역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비중이 큰 사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초래하는 국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한반도 안정을 원하는 중국의 기본적 인식을 보여주며, 당시 북핵 당사자들에게 대화를 촉구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31) 이춘복(2013), p. 5 재인용.

32) 2013년 6월 중미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하며, 북핵문제가 중미간의 협력의제가 됨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2013년 9월 중미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의사를 확인해 주었다.

33) 리위엔차오와 김정은의 회담에 대해서 인민일보와 로동신문의 보도비중의 차이도 살펴볼 수 있는데, 당시 로동신문은 1면부터 지면을 할애하며 리위엔차오의 방북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 인민일보는 국제란에 리위엔차오의 방북소식을 짧게 전달하고 있다. 당시 북중간의 상호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표 3-2> 2013년 북중교류 현황 및 주북 중국대사의 활동³⁴⁾

일시	활동내용	비고
2013년 1월 1일	류홍차이대사, 북한신년경축회 참가	사회문화
2013년 1월 24일	류홍차이대사, 신년연회 개최 및 화교가정방문	사회문화
2013년 1월 25일	춘절맞이묘회, 평양에서 개최	사회문화
2013년 5월 23일	류원산, 김정은특사 최룡해 접견	정치외교
2013년 5월 24일	시진핑, 김정은특사 최룡해 접견	정치외교
2013년 6월 21일	국무위원양제츠, 조선외무성제1부상 김계관 접견	정치외교
2013년 7월 1일	왕이외교부부장, 조선외무상 박의춘 접견	정치외교
2013년 7월 6일	주북대사관과 재북유학생 축구우호경기	사회문화
2013년 7월 11일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2주년 연회	정치외교
2013년 7월 25일	리위엔차오부주석, 조선전쟁 정전60주년기념활동을 위한 방북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 참배)	정치외교
2013년 7월 25일	김정은, 리위엔차오 접견	정치외교
2013년 7월 29일	중조양국고참병, 평양에서 친목활동 진행	정치외교
2013년 8월 1일	중국주북한대사관,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86주년연회	정치외교
2013년 9월 27일	중국주북한대사관, 중화인민공화국창건 64주년연회	정치외교
2013년 9월 29일	북한외무성, 주북사절단체육대회 및 국제미식절	사회문화
2013년 9월 30일	김영남, 중조우호협회대표단 접견	정치외교
2013년 10월 9일	중조정부문화교류집행계획, 북한에서 체결	사회문화
2013년 10월 10일	류홍차이대사, 제2회 조중경제문화관광박람회 참가	경제무역
2013년 10월 17일	류홍차이대사, 강원도 세포구릉목장개조공사 참관	경제무역
2013년 10월 22일	중국주북한대사관, 평양시경제민생분야 참관	경제무역
2013년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쟁참전 63주년, 우호탑헌화식	정치외교
2013년 10월 29일	중국외교부부부장 류전민, 북한외무성부상 접견	정치외교
2013년 10월 30일	중국외교부부부장 장예쑤이, 북한외무성부상 접견	정치외교
2013년 10월 30일	류홍차이대사, 조중우호협작농장지원활동	경제무역
2013년 10월 31일	류홍차이대사, 조중U14국가여자우호대회 참관	사회문화
2013년 11월 10일	중국대사관과 북한인민보안부외사국, 체육활동개최	사회문화
2013년 11월 19일	류홍차이대사, 평양양탄자공장 참관	경제무역
2013년 11월 23일	<중조경제 및 문화협력협정>60주년기념활동, 평양에서 개최	사회문화
2013년 12월 3일	류홍차이대사, 2013년 하반기 중국어반 졸업식 참가	사회문화

34)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온 2013년 활동의 주된 내용을 필자가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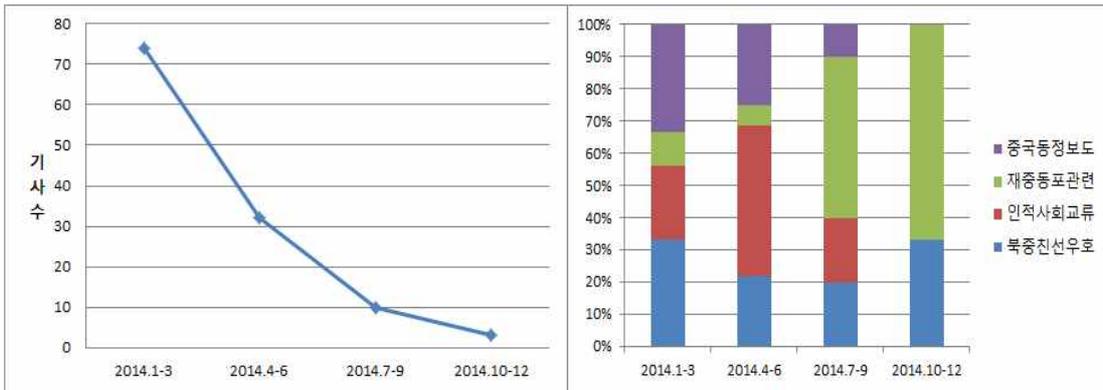
제2절 북한의 대외관계 다변화와 북한의 중국 무시(2014.1~2015.12)

2.1 북한의 인식과 전략

2013년 2월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중국과 냉각기를 가졌다. 2013년 하반기에 북중친선 우호 관계를 강조하고, 인적사회교류를 적극적으로 펼친 북한은 2014년 신년사에서 어떠한 대외정책이념을 표명했을까? 다음은 2014년 1월 1일자 로동신문에 게재된 신년사 가운데 대외정책에 대한 부분이다. 2014년 제시된 대외정책이념은 2013년 북한이 신년사에서 내세운 대외정책이념³⁵⁾과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2014년 1월 1일 로동신문 1면)

북한은 2013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대외정책이념을 제시하였지만, 2014년 로동신문에 대중국 관련 기사수는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1사분기(1월~3월)는 74편, 2사분기(4월~6월)은 32편, 3사분기(7월~9월)은 10편, 4사분기(10~12월)은 3편으로 급감하고 있다. 하반기 들어 북중친선과 인적사회교류의 기사는 급감하고, 그 자리는 재중동포관련 기사로 채워지고 있다. 특히 2014년 하반기(6월~)부터 기사의 급감은 두드러지고 있다. 2014년 1년간 대중기사가 점차 낮아지는 이유는 왜일까?



<그림 3-3> 로동신문 대중기사 증감수와 주제별 구성(2014.1~2014.12)

35)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2013년 1월 1일 로동신문 1면)

당시 중국의 대북정책은 시진핑 지도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지구적 차원의 대외전략, 동북아전략, 한반도 전략의 변화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또 다른 차원의 변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을 표방하는 주변국 외교를 펼치면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었다. 중국은 주변국인 한국과도 우호관계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다. 중국은 한국과 2013년 6월 베이징 정상회담, 2014년 7월 서울 정상회담, 2014년 11월 베이징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가고 있었다. 중국이 한국과 전략적 협력과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을 균형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의도하는 균형자세가 북중 동맹관계의 엄청난 퇴보라고 인식되었다³⁶⁾. 한편, 중국은 2015년 6월 1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언론성명을 발표하는 데 동참하였고, 2015년 7월 초 시진핑 주석은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해 ‘북핵불용’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일련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유일한 동맹국가인 중국의 변화된 전략은 북한으로서는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전개 속에서 로동신문은 2014년 6월 이후 대중국 기사수를 대폭 줄여 나간다. 기사의 주제별 구성을 보더라도 북중친선우호, 인적사회교류, 중국동정 등의 기사는 줄었고, 그 대신 재중동포 관련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적사회교류에 관한 기사의 급감이 두드러진 특징인데, 이 시기 북중간 인적사회교류의 단절을 보여준다. 북한은 2014년 6월과 7월 로동신문을 통해 중국 비난을 강하게 쏟아내고 있다. 로동신문 2014년 6월 28일자 1면에서 <위대한 사상의 힘은 무궁무진하다>의 사설을 실고 중국을 대국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자주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의 근본핵이다. 자주로 일관된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자주성이 강한 인민으로 자라날 수 있었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할 수 있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여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가 있었기에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강권책동도, 대국주의자들의 압력도 우리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 이 땅위에 일떠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북한이 중국을 비판할 때 일반적으로 큰 나라, 대국³⁷⁾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36) 문홍호(2014), p. 24.

37) 북한은 말하는 제국주의자는 미국을 의미하고, 자주성 견지를 민족주의나 고립주의로 비방하며 압력을 가하고 내정에 간섭하면서 경제통합까지 강요하는 대국주의자는 중국이나 구소련을 의미한다. 장용석, (2012), p. 71.

북한은 2014년 6월 28일 1면에서 중국을 대국주의자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한국방문 전날인 2014년 7월 2일 <조선신보>는“격동의 동북아시아, 조일합의를 둘러싼 국제정세”라는 논설을 통해“조선반도는 강대국들의 갈등을 부추길 수도, 해소할 수도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를 부각시켰다³⁸⁾. 로동신문 2014년 7월 21일 4면에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강화조치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라는 기사문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중국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다.

...7월 16일에는 박근혜까지 괴뢰군부깡패두목들을 청와대 안방에 불러다놓고 우리가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도발행보>>로 긴장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고 함부로 걸고들면서 감히 그 누구에게 <<그 대가가 엄청나다는 것을 인식시킬 것>>이라고 희뻘게 뉘척대기도 하였다.

...이러한 해괴한 광대놀음에 일부 주대없는 나라들도 맹종하여 미국의 구린내나는 꿈무늬를 따르면서 저저마다 가련한 처지에 이른 박근혜를 껴안아보려고 부질없이 원심을 쓰고 있다.

이들 보도물에서 북한은 중국을 겨냥해‘대국주의자’라고 비판하고, 한중정상회담과 관련해‘주대없는 나라’라고 칭하며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언급하면서 중국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위치를 상기시키는 주장을 폈다. 당시 로동신문은 중국에 대한 비판과는 상반되게 러시아와의 친선관계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로동신문 2014년 7월분은 조로친선에 대한 기사가 이전(2012년과 2013년) 시기의 조중친선 기사를 대신하고 있다. 2014년 7월 19일 6면에는 <조로친선관계발전의 새로운 역사적리정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그 기사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로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통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기려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념원이며 의지이다. 조로공동선언은 두 나라 인민들의 이러한 념원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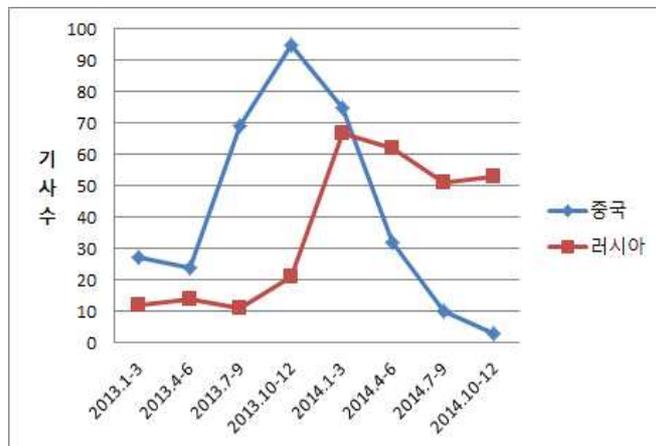
조로공동선언에서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사이의 협조와 협력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과 세계의 다극화를 실현하며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해나가는 시대적추세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에 동참하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자,

38) 박동훈(2015), p. 255.

북한은 새로운 후원자 찾기 혹은 신등거리 외교를 본격 가동하면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해 나갔다. 우선 북한은 일본과 납치자 문제 협상을 재개하였다. 2014년 5월 스톡홀름에서 북일간 국장급회의를 열어 5.25합의문을 발표하였고, 일본은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2013년 9월 극동 하산역-나진항 간 철도구간 개통을 시작하였고³⁹⁾, 2014년 5월 러시아는 북한의 구소련 채무를 90%나 대폭 탕감하기로 하였다. 최룡해, 김영남, 리수용 등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2014년 10월 들어 러시아가 북한의 철도 현대화 사업에 본격 참여한다는 선언이 있었고,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의 나진항 3호 부두를 개통하였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에 정보기술(IT), 전통의학(한의학)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제안하였다⁴⁰⁾.

2014년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전략변화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북러간 친선우호 관계진전과 대비하면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아래 그림은 2013년과 2014년 로동신문에 실린 중국과 러시아 관련 기사를 수치화하고 이를 대비한 것이다.



<그림 3-4> 2013/2014년 로동신문 대중/대러 기사증감수 대비도

2014년 2월까지 대러 기사보다 많았던 대중관련 기사는 2014년 3월부터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2014년 3월의 경우 대중기사는 21건, 대러기사는 39건이다. 2014년 하반기인 2014년 3분기(7~9월) 대중기사는 10건, 대러기사는 51건이었다. 2014년 4분기(10~12월) 대중기사는 3건이었으나, 대러기사는 53건에 이르렀다. 2014년 한 해 동안 로동신문의 기사수와 기사내용은 북한이 중국을 배제(排除)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하반기 이후 로동신문에

39) 이기현(2015),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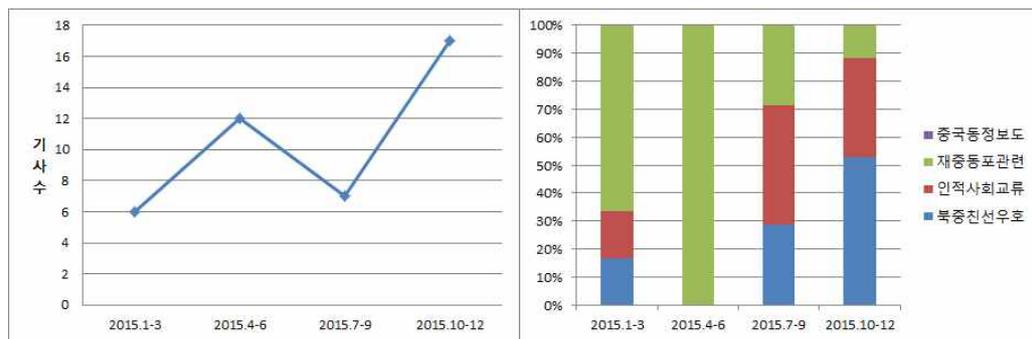
40) 북, 중 대신 러'줄타기 외교'(서울신문, 2014년 7월 24일자)

서 사회주의 위업이나 당사업과 같은 소개 등은 중국 기사를 대신하여 러시아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내용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2014년부터 대외관계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꾀한 북한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해 변화된 자국의 대외정책이념에 대한 입장을 보여준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것입니다. 우리는 혁명적원칙과 자주적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존엄과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신년사에서 대외관계에 대한 자주권과 리익을 우선시하고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제시한 북한은 로동신문 1월 6면 국제정세면에서 ‘자주’를 강조하는 기사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자주권존중의 원칙에서 선린우호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2015.1.3)>, <자주성에 기초한 대외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2015.1.11)> 등을 통해 대외관계에서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신년사를 통해 나타난 북한의 대외정책이념은 자주, 평화, 친선이었다. 하지만 2015년 북한은 중국관계를 의미하는 ‘친선’을 신년사에서 제외하는 대신, 나라의 리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5> 로동신문 대중기사 증감수와 주제별 구성(2015.1~2015.12)

2014년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급감한 대중국 기사는 2015년에 들어서도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로동신문에서 대중 기사는 6편에 불과하다. 1월, 2월, 3월의 기사수는 각각 2편, 3편, 1편이다.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기사수는 증가되었지만,

12편에 불과하였다. 또한 12편의 기사 모두 재중동포 관련 내용으로, 북중친선우호, 인적사회교류, 중국동정보도에 관한 기사는 전무하다. 2015년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총 기사 수는 18건에 지나지 않았다. 2015년 11월은 대중기사가 한 편도 실리지 않았고, 2015년 12월은 1편에 불과하다. 로동신문에 실린 대중국 기사수로만 본다면 201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시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대북기사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민족의 진로를 밝힌 휘황한 설계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접한 재중동포들의 반향(2015.1.5.)>

<남조선당국은 동족을 겨냥한 전쟁연습과 대결소동을 중지해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 담화발표(2015.1.1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 동지의 가족,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2015.2.15.)>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경축행사들 진행(2015.2.1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재중동포단체들의 축전채택모임진행(2015.2.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2015.3.31.)>

위에 제시된 6편의 중국관련 기사들은 재중동포에 관한 기사(5편)와 주북 중국대사 신임장을 봉정한 사실을 전달한 기사⁴¹⁾(1편)로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로동신문에 나타난 대중기사의 전체내용이다. 2015년 하반기(7월부터) 이후 북중친선관계에 관한 기사가 출현하지만, 실제 6개월간 기사수가 총 24편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중국에 대해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2015년 시기 북한의 대중 인식과 전략은 중국 배제(passing)가 나타나는 시기였고, 이러한 사실은 2015년 로동신문의 대중기사의 급감과 그 내용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2014년과 마찬가지로 북중친선에 관한 기사를 대신해 북러친선에 관한 기사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2014년 7월 19일과 마찬가지로 2015년 7월 19일자 6면은“조로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획기적 사변”이라는 제목으로‘조로친선’을 강조하는 기사를 실고 있다.

41) 부임 이후 일주일이 지난 3월 31일에 신임장 재정 소식을 짙막하게 전하고 있다. 반면 같은 시기 북한은 알렉산드르 티모닌 전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이임하며 강석주 당 비서 등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난 소식은 상세히 보도하였다.“북, 신임 중대사 부임, 한 줄 보도 관계복원 아직”(동아일보 2015년 3월 31일)

다만 북중간 관계개선의 흐름이 로동신문 지상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 로동신문이 보여주는 기사와 달리 2015년 7월 이후 북한이 중국의 관계개선 움직임에 소극적이거나 호응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7월 25일 김정은은 제4차 로병대회에서 두 차례나 중국지원군렬사, 노병에게 인사를 하였고, 7월 27일 김정은은 중국지원군렬사능에 헌화를 했다. 8월 초에는 김정은은 평양 만경대에 중국지도자상(밀랍인물상 전시관) 전시관 설립을 허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북한과 중국의 움직임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관계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고 실천에 옮기는 반면, 북한은 이에 소극적으로 호응하는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다.

2.2 중국의 인식과 전략

중국은 2014년 북한과 소원한 관계를 이어나갔다. 2014년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실린 북중교류 현황과 주북 중국대사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전체 27건의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치외교 11건, 경제무역 4건, 사회문화 12건이다. 정치외교 차원의 교류는 11건이지만,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단독의 활동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북 중국대사관 차원에서 단독으로 중국인민군지원군 관련 활동(7건),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의 북한 방문일정⁴²⁾(1건), 재북유학생 좌담회(1건), 김정일 서거 3주년 추모(1건) 등이다. 중국은 2014년 당시 북한과 냉각된 관계 속에서 북한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고, 주북 대사관 활동을 자체적으로 펼쳐나갔다고 할 수 있다. 경제무역 차원 역시 류홍차이 대사의 농장지원과 지방도시 시찰 등으로 정부간 경제무역(사업) 활동이 아닌 북한과의 우호 및 관계증진을 희망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문화차원의 교류인데, 2014년 소원한 북중관계로 인해서 정치외교와 경제분야의 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황 속에서 사회문화 차원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문화 활동 역시 주로 대사관 자체의 내부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3> 2014년 북중교류 현황 및 주북 중국대사의 활동⁴³⁾

일시	활동내용	비고
2014년 1월 3일	류홍차이대사, 신년맞이 화교위로방문	사회문화
2014년 1월 21일	2014년 조중친선 설명절합동공연, 평양에서 진행	사회문화

42) 당시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은 남북한 동시 방문을 추진하였다.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을,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였다.

43)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온 2014년 활동의 주된 내용을 필자가 정리함.

2014년 1월 21일	류홍차이대사, 화교춘절연회 개최	사회문화
2014년 2월 17일	류전민 중국외교부부부장, 북한 방문	정치외교
2014년 2월 27일	중조문화합작협정 및 중조항공운수협정 55주년기념 활동, 평양에서 거행	사회문화
2014년 4월 4일	류홍차이대사, 중국인민지원군열사기념비 참배	정치외교
2014년 4월 5일	주북대사관부녀자소조, 주북사절단봉사활동 참가	사회문화
2014년 4월 12일	류홍차이대사, “4월의봄”국제우의예술제중국예술 단 첫 무대공연 참관	사회문화
2014년 5월 26일	류홍차이대사, 중조우호합작농장지원활동	경제무역
2014년 6월 17일	류홍차이대사, 평양1중“마오쩌둥반”명명55주년 기념활동 참석	사회문화
2014년 6월 20일	주북중국유학생과 대사관직원 친선농구대회	사회문화
2014년 7월 1일	재북유학생, “7.1”좌담회 개최	정치외교
2014년 7월 2일	류홍차이대사, 나선특별시와 함경북도 시찰	경제무역
2014년 8월 21일	류홍차이대사, 재북지원군열사능묘복구관리작업 시 찰	정치외교
2014년 9월 8일	류홍차이대사, 추석 재북유학생 방문	사회문화
2014년 9월 27일	주북대사관, 회창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묘 화교참배 단 조직	정치외교
2014년 9월 28일	주북대사관, 중화인민공화국창건 65주년 연회개최	정치외교
2014년 9월 30일	주북대사관, 열사참배활동 전개	정치외교
2014년 9월 30일	북한, 중화인민공화국창건 65주년 연회 개최	정치외교
2014년 10월 1일	류홍차이대사, 중국인민지원군고참병 방북참배단 접견	정치외교
2014년 10월 14일	류홍차이대사, 중조우호합작농장 추수지원활동	경제무역
2014년 10월 16일	제3회중조무역문화여행박람회, 단동에서 거행	경제무역
2014년 10월 20일	류홍차이대사, 신의주화교학교체육관 현판식	사회문화
2014년 10월 23일	류홍차이대사, “중조우호”백내장수술환자 방문	사회문화
2014년 10월 25일	주북대사관,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쟁참전 64주년 기념행사	정치외교
2014년 12월 16일	주북대사관, 김일성, 김정일동상헌화, 김정일 서거 3 주년 추모	정치외교
2014년 12월 29일	류홍차이대사, 2015년 북중체육교류협정서 체결	사회문화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는 대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대국관계의 재조정과 주변국 관계의 평화안정의 유지이다. 이러한 대외전략의 핵심목표는 보다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중국

의 꿈 실현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였고, 이후 2013년 6월 창완취안 국방부장의 방미, 2014년 4월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의 방중, 2014년 8월 우성리 해군사령관의 방미과정 등에서 중미의 신형대국관계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미국은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제안에 대해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⁴⁴). 이 과정에서 중국은 동북아 전략에 전환을 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인식과 접근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환구시보에 연속으로 게재된 대북정책 관련 기고문 다섯 편 가운데 대다수가 북중관계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⁴⁵). 중국의 언론 뿐 아니라 당시 중국의 한반도 연구자들도 비슷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었다. 2014년 12월 19일부터 21일 중국정법대학에서 열린 "국제체제의 전환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학술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가 불균형하며 한반도 전략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중국군사과학원의 왕이성(王宜胜)박사는 "현재의 중북관계는 북미관계의 모순이 중북관계의 소원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정법대학의 한반도문제연구소주임인 치바오량(戚保良)박사는 "중국은 새로운 정세에서 한반도 평화안정과 동북아 지역전략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전략짜기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정법대학의 한헌동(韩献栋)교수와 북경대학의 김경일(金景一)교수는 미국의 아시아회귀 전략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⁴⁶).

실제 2014년 연말부터 중국은 북한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냉각관계에 놓인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2014년 12월 17일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북경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하여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⁴⁷). 12월 29일 북중 양국은 '2015 체육교류협정서'를 체결했다. 중국 외교부는 2015년 1월 8일 김정은 생일에 보낸 축전에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라는 16자(字)방침을 언급하였고, 중국 외교부는 1월 8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생일에 대해 홍레이 대변인과 기자회견의 문답형식의 성명에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방침을 토대로 북중 전통 우호협력관계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⁴⁸). 2015년 3월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북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중북관계는 기초가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특정

44) 문홍호(2014), pp. 18-19.

45) 서정경(2015), p. 32.

46)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张晶·张雅璐, "国际体系转换背景下的朝鲜半岛与东北亚"研讨会综述, 『现代国际关系』, 2015年 第1期, 63-64页.

47) 중 서열 5위 류윈산, 북대사관 김정일 추도석 참석, 연합뉴스, 2014년 12월 17일자.

48) 중국 외교부성명, 2015년 1월 8일.

시기와 개별적인 일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며 받을 수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왕이 외교부장은“중국은 북중간 전통적 우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⁴⁹⁾.

2015년 3월 주북 중국대사로 취임한 리진권 대사의 활동 전개과정은 중국의 대북인식과 접근에 대한 조정(변화)을 확연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리진권 대사는 취임과 함께 3월 30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와의 면담에서‘상호존중, 평등상대, 구동존의, 협력 공영’의 원칙을 언급하며 북중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희망하였다. 이후 4월 5일 리진권 대사는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을 방문하여,“자신의 눈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중조우의를 사랑하고 보호하자. 중조우의를 더욱 빛내고 성대하게 하며 영원토록 변하지 않게 하자⁵⁰⁾”는 글을 남기며 중조우의를 강조하였다. 그는 4월 21일 리룽남 북한 대외경제상과의 회담에서는 당시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의 구상과 비전을 설명하며,“중조양국이 경제무역협력을 추동하여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자”고 강조하였다⁵¹⁾. 4월 29일 북중 우호협회 중앙위원장인 강하국과의 면담에서는 양국간 의료위생 분야 협력을 비롯한 민간외교의 발전을 희망하며,“중국과 조선이 민생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우호협력이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⁵²⁾.

리진권 대사는 5월 4일에는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중조우호에 대해 강조하였고, 5월 6일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만수대 의사당에서 만나“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중국과 북한 양국이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회를 잡으며 이익과 운명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말했다⁵³⁾. 이후 리진권 대사의 일련의 활동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리진권 대사는 7월에 들어 개성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에서 참배를 하였고, 같은 달 김정은의 중국지원군열사와 노병에게 경배를 한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 2015년 9월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는‘오늘의 조선’이란 9월호 잡지에 실린 리진권 대사의 기고문을 공개하고 있다.‘역사는 힘들게 얻은 평화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리진권 대사는“70년 전 중국과 북한의 인민과 군대가 공동의 적에 맞서 나란히 싸우고 상호 지지하며 긴밀히 협력한 것을 중국은 잊지 않을 것...중국 인민들은 이를 마음속에

49) 중앙일보 2015년 3월 8일.

50) <http://kp.china-embassy.org/chn/dshd/dshd/t1252342.htm>

51) <http://kp.china-embassy.org/chn/dshd/dshd/t1257266.htm>

52) <http://kp.china-embassy.org/chn/dshd/dshd/t1259328.htm>

53) <http://kp.china-embassy.org/chn/dshd/dshd/t1261294.htm>

영원히 깊이 새기고 양국 혁명선열이 목숨과 피로써 맺은 중조우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⁵⁴⁾.

2015년 3월 부임한 리진권 대사의 활동은 이전 주북 중국대사의 활동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당시 중국이 냉각된 북한과의 우호관계 회복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2013년 2월 핵실험 이후 북한이 2013년 하반기까지 로동신문에서 중국과의 친선관계를 강조한 것과 대비되듯 중국은 2014년 연말부터 일련의 활동전개를 통해 북한과의 친선관계를 회복하려 하였다.

주북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소개된 2015년 북중교류 및 주북 중국대사의 활동내용은 아래의 표로 정리될 수 있다. 항목별로 정치외교 27건, 경제무역 13건, 사회문화 11건 등으로 총 51건의 활동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27건보다 두 배가량 증가된 양이다. 2014년 활동내용과 비교할 때 정치외교와 경제무역 분야의 활동이 사회문화 분야의 활동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2015년 중국은 정치와 경제분야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회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경제민생 분야에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한편, 북한과의 정치외교적 관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활동을 이어나간 리진권 대사의 활동내용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표 3-4> 2015년 북중교류 현황 및 주북 중국대사의 활동⁵⁵⁾

일시	활동내용	비고
2015년 1월 20일	류홍차이대사, 신년맞이 재북화교 위로방문	사회문화
2015년 2월 5일	류홍차이대사, 춘절 화교연회 거행	사회문화
2015년 3월 30일	리진권 신임대사, 김영남위원장에게 국서전달	정치외교
2015년 4월 5일	리진권대사, 중국인민지원군열사기념비 참배	정치외교
2015년 4월 11일	주북대사관, 사절단바자회활동 전개	사회문화
2015년 4월 21일	리진권대사, 북한대외경제상 이용남 예방	경제무역
2015년 4월 29일	리진권대사, 조선보건상 강하국 예방	정치외교
2015년 5월 4일	리진권대사, 조선외부성부상 이길성 예방	정치외교
2015년 5월 6일	리진권대사, 조선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부위원장 양형섭 예방	정치외교
2015년 5월 13일	리진권대사, 북한중국상회 기능향상 촉구	경제무역
2015년 5월 14일	제18차 평양춘계국제상품전람회 거행	경제무역
2015년 6월 5일	리진권대사, 중조우호합작농장 지원활동	경제무역
2015년 6월 8일	리진권대사, 세계식량기구(WFP)관계자 접견	경제무역

54) <http://kp.china-embassy.org/chn/dshd/dshd/t1292395.htm>

55)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온 2015년 활동의 주된 내용을 필자가 정리함.

2015년 6월 23일	리진권대사, 유럽연합대외행동청관계자 접견	정치외교
2015년 7월 9일	리진권대사, 중조합작기업 시찰	경제무역
2015년 7월 30일	리진권대사, 중국인민해방군 창건88돐 경축연회 개최	정치외교
2015년 7월 31일	리진권대사, 개성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 참배	정치외교
2015년 7월 31일	리진권대사, 김정은의 중국지원군열사와 노병에 대한 경배를 높이 평가	정치외교
2015년 8월 1일	주북대사관, 중국미식절 행사	사회문화
2015년 8월 4일	리진권대사, 북한강서약수공장 시찰	경제무역
2015년 8월 5일	리진권대사, 세계위생기구(WHO)주북대표 접견	정치외교
2015년 8월 19일	리진권대사, 루마니아주북임시대리공사 접견	정치외교
2015년 8월 29일	제1차 일본역사왜곡국제학술토론회, 평양개최	정치외교
2015년 9월 3일	주북대사관, "9.3"(국기)계양식 거행	정치외교
2015년 9월 3일	주북대사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파쇼전쟁 승리 70돐 기념연회 개최	정치외교
2015년 9월 15일	중조 <중조투먼-남양 새로운 교각 건설>체결	경제무역
2015년 9월 15일	중국적십자회, 북한나선재해지역 기부	사회문화
2015년 9월 22일	리진권대사, 체코주북대사 접견	정치외교
2015년 9월 23일	리진권대사, 제11차 평양추계국제상품전람회 참관	경제무역
2015년 9월 26일	주북대사관, 주북사절단중추달구경 연회 거행	사회문화
2015년 9월 28일	주북대사관, 중화인민공화국창건 66돐 경축연회	정치외교
2015년 9월 30일	리진권대사, 안주인민지원군능원 참배	정치외교
2015년 9월 30일	북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6주년 연회 거행	정치외교
2015년 10월 14일	류원산, 김영남 및 최룡해 등과 회견	정치외교
2015년 10월 14일	류원산, 조선로동당 70주년활동 및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 참배	정치외교
2015년 10월 25일	중북양국, 중국인민지원군 참전65주년 기념	정치외교
2015년 10월 25일	중북양국, 개성인민지원군열사능원 보수작업준공식 거행	정치외교
2015년 10월 28일	주북대사관, 민정부대표단방북 연회 개최	정치외교
2015년 11월 13일	주북대사관, 북한외무성 중국국(局)을 위한 우호활동	정치외교
2015년 11월 17일	중국건축학회대표단 방북	경제무역
2015년 11월 19일	주북대사관, 김일성종합대학교 교원을 위한 우호활동	사회문화

2015년 11월 23일	주북대사관, 북한외무성 보도국(局)을 위한 우호활동	정치외교
2015년 12월 1일	주북대사관, 북한외무성영사국을 위한 우호활동	정치외교
2015년 12월 1일	중국체육중사자대표단 방북	사회문화
2015년 12월 9일	리진권대사, 조선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 중국공연 배웅	사회문화
2015년 12월 10일	리진권대사, 평양시경제민생분야 시찰	경제무역
2015년 12월 22일	리진권대사, 김일성종합대학교원주택 시찰	사회문화
2015년 12월 23일	리진권대사, UNICEF주북대표 접견	정치외교
2015년 12월 24일	리진권대사, 채소전문합작농장 시찰	경제무역
2015년 12월 28일	북한체육성부상 손광호일행 방중	사회문화
2015년 12월 29일	리진권대사, 중조우호합작농장 우호활동	경제무역

2015년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힘을 쏟았고, 2015년 하반기 들어 중국은 북한과의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다. 2015년 10월 9일 류윈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참여로 방북하게 된다. 당시 인민일보 2015년 10월 9일자 1면은 시진핑 주석이 조선로동당 70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낸 소식과 함께 축전의 전문을 싣고 있다. 같은 날 리위엔차오는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조선로동당 70주년을 축하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중북관계의 친선우호를 강조하는 연설을 하였다. 2015년 10월 9일 방북한 류윈산은 연설에 나타난 16자(字)방침의 언급을 통해 당시 중국의 대북인식과 전략에 대한 기본인식이 잘 드러내고 있다.

“중조양국은 우호적인 이웃국가로, 중조의 우호는 양국의 로세대지도자들이 친히 만들고 발전시켜온 것으로 이는 양국 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다.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중조양국의 전통적 우의를 중시하며, 고도의 전략과 장기적 시각으로 중조관계를 살펴보고 지켜내고자 한다. 조선공산당과 인민이 본국의 실정에 맞는 발전적 궤도를 찾아가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중조우호관계의 미래를 위해 양국은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의 16자 방침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9일 신화사 보도)

2015년 10월 25일 북중 양국은 중국인민지원군 참전 65주년 기념활동을 전개하며, 개성인민지원군열사능원의 보수작업의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2015년 11월 들어 주북 중국대사관은 북한외무성 중국국(中國局),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북한외무성 보도국(報道局)을 위한 우호활동을 진행하며 북한과 우호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2월 들어서도 리진권 대사는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에서 일련의 북중간 우호활동을 전개하

였다. 이처럼 2015년 한 해 동안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⁵⁶⁾.

제3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북중양국의 전략적 협력(2016.1~2017.6)

3.1 북한의 인식과 전략

우리당과 공화국정부는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2016년 1월 1일 북한 신년사)

2015년 한 해 동안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북한도 이에 호응하여 2015년 후반기에 들어 북중간 일련의 정치외교적 차원의 우호관계의 흐름이 이어졌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신년사를 살펴보면, 북한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자주’를 강조한 대외정책이념을 밝히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강조해온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이념은 사라지고, 2015년과 마찬가지로 ‘자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2015년 신년사의 대외정책이념과 비슷한 선상에서 대외관계를 보고 있음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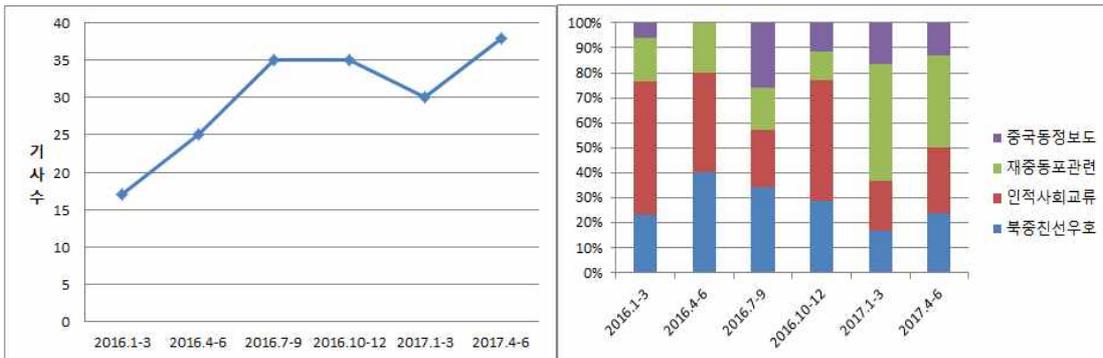
2015년 12월 로동신문에서 수소탄을 처음으로 언급했던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로동신문 1월 7일자 1면에 실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할 데 대한 력사적인 명령을 하달>의 기사내용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주체 104(2015)년 12월 15일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데 이어 주체 105(2016)년 1월 3일 최종명령서에 수표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진행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이 발표된다”고 알리고 있다. 같은 날 로동신문의 2면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완전 성공했음을 전하고 있다.

56) 2015년 한 해 동안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했지만, 중국의 희망대로 북중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 사례로 2015년 12월 모란봉악단의 중국공연 무산을 들 수 있다.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베이징 국가대극원 오페라하우스에서 중국의 당정 지도부와 북한 간부 등 2천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공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2일 첫 공연을 3시간 여 앞두고 북한 측의 전격적인 취소로 공연은 무산되었다.

1월 7일자 6면 국제정세면에서는“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조치-수소탄보유는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우리의 자위적 권리”라고 알리고 있다. 1월 8일자 6면 국제정세면에서는“포악무도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우리의 힘 강대하고 미래도 찬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1월 11일자 6면 국제정세면은“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은 조선의 승리, 국력을 과시한 또 하나의 사면-우리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성공 소식 여러 나라에서 특대소식으로 련속 대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2015년에 이어 2016년에 들어 대외정책에서‘자주’를 강조한 북한은 4차 핵실험에 대한 성공으로 강대한 국가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로동신문에서는 수 개월간 북중친선관계에 대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2016년 1월 4차 핵실험 다음 달인 2월부터 로동신문은 북중친선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기사를 싣고 있다. 비록 핵실험이 있었지만, 중국대사관에서 2016년 중조 친선봄맞이음악회를 진행하였고(2016.2.25.), 중국의 길림성교향악단이 북한을 방문(2016.2.21.)했음을 알리는 기사를 통해 북중간 친선우호행사들이 진행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로동신문의 대중 기사 수의 증감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4차 핵실험에 대한 미중간 북한의 제재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이던 2016년 2월은 9건, 제재안이 채택된 3월은 1건의 중국 관련 기사가 실렸다. 4월부터 6건, 5월 11건, 6월 8건, 7월 14건 등으로 대중기사 수가 점차 증가하였다. 2016년 7월 12일자 로동신문의 3면에는 북중양국은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체결 55주년을 맞아 상호 교환한 축전의 전문을 싣고 있다. 이러한 로동신문의 대중 기사물의 보도행태를 볼 때 북한은 핵실험과 무관하게 중국과의 관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6> 로동신문 대중기사 증감수와 주제별 구성(2016.1~2017.6)

한편, 2016년 7월 대중 기사의 주제별 구성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국동정보도의 기사수의 비율이다. 2016년 4월부터 6월 사이 중국동정보도 기사는 실리지 않았는데,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결정된 이후 로동신문은 국제정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히는 기사를 많이 실고 있다. 로동신문의 7월, 8월 두 달의 대중 기사 20개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7개 기사가 사드 관련한 내용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기사를 실고 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미간 갈등상황을 자국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로동신문 7월과 8월호에 실린 사드배치 관련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 <중국군사평론원 미일남조선미싸일 경보훈련의 목적을 폭로(2016.7.12)>
- <중국외교부 미국의 싸드배치를 강력히 반대(2016.7.15)>
- <중국외교부 대변인 자제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2016. 7.17)>
- <중국전문가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치결정은 작은 나토의 형성을 의미한다고 주장(2016.7.25)>
- <싸드의 남조선배치책동을 당장 중지하라 싸드배치에 단호한 대응을 주장 중국 군사평론원 인터넷에 글 게재(2016.7.31)>
- <승냥이를 집에 들여놓는 경솔한 행동, 중국과 로씨야전문가들 싸드 배치후과에 경고(2016.8.6)>
- <중국전문가 싸드 문제해결을 위해 괴뢰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2016.8.22)>

2016년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북한은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전례없이 1년에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지만, 로동신문의 9월 기사는 오히려 핵실험 이전인 8월에 실린 6편의 기사보다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15편의 대중기사를 실고 있다. 중북간 인적사회교류(5편), 북중친선우호(5편), 중국의 동정보도(1편), 재중동포관련(4편)의 기사 등을 고루 실고 있다. 핵실험 다음 날인 9월 10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올화 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2016.9.10.)>, <선군조선의 태양이시여 해외 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드립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2016.9.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경축모임 진행(2016.9.12.)>, <백두산청년강국의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드립니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 일동(2016.9.13.)> 등의 북중친선을 강조하는 기사가 게재되고 있다.

인적사회교류 기사를 보더라도, 9월 이후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방북(9월 20일), 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 전람회(9월 25일),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9월 27일) 등이 이루어

졌으며, 9월 30일은 <함경북도 북부피해지역에 중국정부가 지원물자들을 무상기증하기로 결정>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5차 핵실험이 감행된 9월 로동신문의 기사내용과 기사수를 보면 이는 이전 3차와 4차 핵실험 때와 대비가 된다. 5차 핵실험 전후 이전과는 달리 더욱 긴밀해진 북중간의 협조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10월 달도 9월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중기사는 총 14개로, 북중친선우호 4편, 인적사회교류 7편, 재중동포관련 2편, 중국동정보도 1편이다. 2016년 11월은 총 7편, 12월은 14편의 대중기사물이 보도되었다.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 23일 현재까지 로동신문의 대중 관련 기사수는 총 68건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4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 상반기 총 42편의 기사수보다 많은 양이다. 2017년 1사분기(1~3월)는 30편, 2사분기(4~6월)은 38편의 대중기사가 실렸다.

3.2 중국의 인식과 전략⁵⁷⁾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중국 외교부는 당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6자회담의 틀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⁵⁸⁾.

이처럼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북핵 해결과 큰 차이를 보였다.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의 동참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북핵문제의 책임을 지우는 미국의‘중국 책임론’에 반대하였고⁵⁹⁾, 강경한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미일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중국은 북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최선이며, 제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⁶⁰⁾.

한편, 4차 핵실험으로 엄중한 상황을 맞이한 한국정부는 1월 13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검토방안을 발표하였다. 같은 날 중국은 한국의 공식적인 사드배치의 검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월 들어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하자, 한국과 미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논의를 공식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의 안보이익에 저해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2월

57) 이 절의 일부내용은 필자의 논문(“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미중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9권 4호, 2016년)을 요약 및 수정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58) 중국 외교부성명, 2016년 1월 6일.

59) 이는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스스로 언급했던 북핵 문제해결의‘중미 공동책임론’과 차이를 보여 준다.

60) 중국 외교부성명, 2016년 1월 27일.

1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고사인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을 인용하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의도에 있다고 비난하였다⁶¹⁾. 이는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의 자위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는 중국이 원하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 방식이 아닌 미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조치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는 쪽으로 논의되어 나갔다. 이러한 상황 전개 속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2월 17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을 제시하였다. 병행추진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궁극적으로 북한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중국식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중국이 원하는 대화와 협상의 구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복안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병행추진 방식을 제시하고 일주일 이후 중국과 미국은 2월 23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핵실험 이후 갈등을 보인 한반도 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과 이해를 절충했다. 회담 다음날인 2월 24일 미중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하였고, 3월 2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되었다. 3월 2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되었고, 중국은 유엔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이후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⁶²⁾.

하지만 미중간 합의에 의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중양국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였다. 이러한 미중간 갈등 속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이견이 또 나타났다. 6월 6일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막식에서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가장 엄격한 대북제재를 통과시켰고 제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하였다⁶³⁾.

한편,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 리수용 북한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이 6월 2일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면담하였고,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과 회담했다. 이후

61) 연합뉴스, 2016년 2월 13일.

62) 중국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과 무관하게 중국은 북한체제의 안정에 대한 지지를 여전히 보내고 있었다. 2016년 5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되자,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축전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북한간 전통적인 우위는 구세대 지도자들이 직접 창건하고 정성을 들여 길러온 것으로 양측 모두에게 소중한 재산이며...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63) 연합뉴스, 2016년 6월 6일.

6월 30일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 공산당 창건 95주년 기념축전을 보냈는데, 축전은“중국 동지들과 함께 조중친선을 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추동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⁶⁴). 7월 1일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중북관계는 양국의 귀중한 재산”이라고 밝혔다.

7월 8일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공식발표가 있고 나서, 중북관계의 개선의 흐름이 더욱 두드러졌다. 7월 11일 중조우호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양국은 축전을 교환했는데, 중국은 신화사통신을 통해“중국 측은 조선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교류와 협조를 촉진시키며 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⁶⁵). 7월 25일 중북 외교수장은 라오스에서 2년 만에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 발전을 논의하였다. 한편, 7월과 8월 북한은 여러 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의 수위를 높여나갔다. 8월 3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미일 3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미사일에 대한 규탄성명을 채택하려 했으나, 중국은 규탄성명 채택 자체를 무산시켰다.

9월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 감행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핵확산 방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수호는 중국의 굳건한 입장이다.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안보리 관련 결의안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그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중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6자회담의 틀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⁶⁶).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4차 핵실험 때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핵실험 다음 날인 9월 10일 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초청하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게시하였다⁶⁷).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입장을 보인 중국이지만, 중국은 미국이 주장하는‘중국책임론’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4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다시 부각시키며,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9월 12일 중국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북핵문제의 원인제공자는 미국이고, 북핵문제의 실체는 북미관계의 모순에 있다고 밝혔다⁶⁸). 이틀 뒤인 2016년 9월 14일자 인민일보는 <북한 핵문제,

64) 연합뉴스, 2016년 7월 1일.

65) 뉴시스, 2016년 7월 12일.

66) 중국외교부, 2016년 9월 9일.

67) 중, 지재룡 대사 초청 강력 항의(아주경제, 2016년 9월 11일)<http://www.ajunews.com/view/2016091121334368>

68) 중국 외교부성명, 2016년 9월 19일.

미국은 외부인도 아니고 편사도 아니다>는 기사를 싣고 있는데, 그 내용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다. 기사는 북한 핵문제를 두고 미국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도 옳지 않으며, 외부인처럼 방관하는 태도도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⁶⁹⁾.

5차 핵실험 이후 중북관계는 이전의 북핵실험 직후 일정기간의 냉각기를 가졌던 것과 달리 관계 이상기류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북중관계의 우호적 관계의 유지 차원에서 양국관계가 진행되었다. 9월 30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열사기념일 행사⁷⁰⁾에 리진권 중국대사가 참여하여“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방침을 토대로 중북관계를 수호하고 강화하며 발전시키자”고‘16자(字) 방침’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8월 수해를 입자 중국정부는 북한 정부에 2천만 위안 규모의 긴급 인도지원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⁷¹⁾. 또한 2016년 하반기 들어 신압록강대교, 신두만강대교 완공 등이 이루어지며 중북간 경제교류는 더욱 탄력을 받는 양상을 보였다.

2016년 11월 30일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결의가 채택되자, 중국은 결의안에 대한 지지 및 이행을 표명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북핵협상 견지와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 경창 외교부 대변인은 12월 1일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2321호에 대해“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준수하고 평화와 안정유지를 지지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가능한 빨리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⁷²⁾. 제재안 2321호에 북한 석탄의 중국 수입에 대한 제한 조치가 취해졌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 주민의 민생과 인도적 요구, 일상적인 경제, 무역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⁷³⁾.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을 약속하면서도 북한의 안정이 중국에게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5> 2016~2017년 6월 북중교류 현황 및 주북 중국대사의 활동⁷⁴⁾

일시	활동내용	비고
2016년 1월 12일	리진권대사, 신년맞이 재북화교연합회 및 평양시 화교중학교 방문	사회문화

69) 인민일보, 2016년 9월 14일자.

70) 북중 양국은 9월 30일 평양 옥류관에서 중국인민공화국 건국 67주년 연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북한 당정군의 유관 부문 인사와 평양주재 중국대사관 외교관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71) 연합뉴스, 2016년 11월 2일.

72) 중국 외교부성명, 2016년 12월 1일.

73) 중국 외교부성명, 2016년 12월 1일.

74)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온 2016-2017년 활동의 주된 내용을 필자가 정리함.

2016년 1월 21일	리진권대사, 유엔기구북한담당인사 회담	정치외교
2016년 2월 5일	주북대사관, 신년연회 개최	사회문화
2016년 2월 6일	조선외무성, 중국주북대사관 신년우호활동 개최	사회문화
2016년 2월 25일	2016년 조중친선 봄맞이음악회, 평양 개최	사회문화
2016년 4월 4일	리진권대사, 중국인민지원군열사기념비 참배	정치외교
2016년 4월 13일	주북대사관, 재조중국유학생“대사관개방일”개최	사회문화
2016년 5월 29일	중국 남자농구팀, 방북 우호경기	사회문화
2016년 5월 31일	중국 대외연락부부장 쑹타오, 조선로동당 이수용과 회담	정치외교
2016년 6월 1일	시진핑주석, 이수용과 회담	정치외교
2016년 7월 25일	리진권대사, 동평양제1중학교 방문	사회문화
2016년 7월 25일	주북대사관, 회창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 참배	정치외교
2016년 7월 28일	주북대사관, 중국인민해방군건군 89주년 연회 개최	정치외교
2016년 8월 2일	리진권대사, 원산화교 위로방문	사회문화
2016년 8월 3일	리진권대사, 원산 중국인민지원군열사묘 참배	정치외교
2016년 9월 28일	주북대사관, 국경 67주년 재북중국인 연회 개최	정치외교
2016년 9월 29일	주북대사관, 중화인민공화국건국 67주년 연회 개최	정치외교
2016년 9월 30일	북한, 중화인민공화국건국 67주년 경축연회 개최	정치외교
2016년 9월 30일	주북대사관, 지원군열사 참배활동	정치외교
2016년 10월 18일	주북대사관, 주북외교사절 미식제 행사참가	사회문화
2016년 10월 26일	북중양국, 중국인민군 조선전쟁참전 66주년 기념활동	정치외교
2017년 1월 23일	주북대사관, 재북중국인춘절연회 개최	사회문화
2017년 1월 26일	주북대사관, 신년연회 개최	사회문화
2017년 1월 26일	주북한대사관, 2017년 설명절 묘회 개최	사회문화
2017년 2월 7일	북한외무성, 중국주북한대사관을 위한 신년우호활동개최	정치외교
2017년 2월 10일	북중우호신년음악회, 평양에서 개최	사회문화
2017년 2월 24일	중국강소성여자농구팀과 북한여자농구팀 우호경기	사회문화
2017년 4월 1일	리진권대사, 중국인민지원군열사 후손참모단 접견	정치외교
2017년 4월 4일	주북대사관, 중국인민지원군열사기념비 참배	정치외교
2017년 5월 11일	주북대사관, “일대일로”관련영화 연회	정치외교
2017년 5월 20일	주북대사관, 주북사절단바자회 활동참가	사회문화
2017년 5월 24일	주북대사관, 재북중국투자기구 공작회의 개최	경제무역

201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주북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제시된 북중교류과 주북 중국대사의 활동은 총 32건으로, 항목별로 정치외교 16건, 경제무역 1건, 사회문화 15건이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음에도 북중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4, 5차 핵실험 이후는 2013년 3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북중간 우호관계를 이어나가는 행사를 진행하였고, 이들 행사는 대개 정치외교 및 사회문화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경제무역 분야의 행사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이 경제무역 분야의 교류를 공식적으로 가져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중 양국은 정치외교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이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시기 북중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양국간 활동의 상호성에서도 잘 나타난다.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 2월 5일 주북 중국대사관에서 신년연회를 개최하였고, 다음 날인 2월 6일 북한외무성은 중국 주북대사관에서 신년우호활동을 개최하였다. 2016년 9월 5차 핵실험 이후인 9월 29일 주북 중국대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7주년 연회를 개최하였고, 다음 날인 9월 30일 북한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7주년 경축연회를 열어 중국을 지지하는 행사를 가졌다. 같은 날 9월 30일 주북 중국대사관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열사묘를 찾아 참배활동을 전개하였다. 2016년 10월 26일 북중 양국은 중국인민군 조선전쟁 참전 66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러한 주고받기식 행사는 2017년에도 이어졌다. 2017년 1월 26일 주북 중국대사관에서 신년맞이 연회를 개최하였고, 2월 7일 북한외무성은 중국주북한대사관을 위한 신년우호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201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중국과 북한은 주고 받는 행사를 열거나, 공동으로 양국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양국이 처한 환경에서 전략적 협력적 이해관계를 이어나갔다.

제4장 결 론

제1절. 분석 및 평가

김정은 시대 5년 6개월(2012.1~2017.6) 동안 북중 양국의 동학은 크게 다음의 세 단계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① 김정은 시기가 시작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에 이르는 시기의 북중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2년 한 해 동안 북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어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새로운 후계체제 안정에 대한 북중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시기였다. 즉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안정도모를 원했고,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 정권은 중국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한 해 동안 중북간 당군정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상호성을 띤 양자교류가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2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의 북핵 3차 핵실험을 전후한 시기부터 북중 양국의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이전과 달리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가하는 조치들을 취했고,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에도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한편, 북한은 2013년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이 순조롭지 않았고,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강한 압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갖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5월 최룡해 특사의 방중, 6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 7월 박의춘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부장의 회견 등이 이어졌다. 2013년 7월 들어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중 친선우호관계를 강하게 표출하였다. 한편, 중국도 2013년 하반기부터 핵실험으로 냉각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2013년 북중 양국간 교류의 흐름은 북한에서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유지를 더욱 필요로 했다고 할 수 있다.

② 두 번째 시기인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중국의 대외전략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2013년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세계전략 차원에서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은 친, 성, 혜, 용을 표방하는 주변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이 과정에서 북핵문제는 중미간 협력의제로 대두되었고, 한편 중국은 주변국인 한국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2013년

6월 베이징에서 한중정상회담에 이어 2014년 7월 서울에서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11월에는 베이징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러한 상황의 진전 속에서 2014년 중반부터 북한은 중국을 '대국'이라고 비판하며 자국의 지정학적 전략을 상기시키는 전략을 펼쳤다. 한편 북한은 일본과 러시아 등과의 대외관계의 다변화를 통해 대중국 외교를 대체하고자 하였다.

2014년 한 해 동안 로동신문에서 중국에 대한 기사는 급감하였다. 나아가 2015년도 로동신문에서 대중국 기사는 더욱 급감하였고, 북한 친선에 대한 기사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2014년과 2015년 북중양국은 소원한 관계를 이어나갔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북중관계에서 정치외교, 경제무역, 사회문화 교류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고, 2014년 주북 중국대사관의 활동은 주로 북한과의 연계가 없는 대사관 자체 내의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중국은 다시금 동북아 전략에서 북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2014년 연말부터 북한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였다. 2015년 하반기 들어 중국의 노력에 북한의 호응이 있었지만, 당시의 북중간 양자관계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더욱 희망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③ 세 번째 시기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에 이르는 시기이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자, 중국은 핵실험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과 북핵 해결에 큰 차이를 보였다. 중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북핵의 '중국책임론'을 반대하였고, 강경한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한미일의 입장에도 반대하였다. 또한 4차 핵실험 이후 제기된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는 문제를 두고 중국은 강한 반발을 하였다.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 2270호가 채택되었지만, 미중관계 및 한중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였다. 북한 역시 중국과의 관계유지에 호응하면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다. 5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4차 핵실험과 비슷하였는데, 중국은 원칙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강한 대북 압박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미국이 주장하는 북핵의 '중국책임론'에도 강하게 부인하였다. 5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는 핵실험 이후 일정 기간의 냉각기를 가졌던 것과 달리 큰 이상기류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북중관계의 친선우호적 관계를 강조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핵실험이 있었던 9월 북중 양국은 양국의 친선우호를 강조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북중간 경제무역 관계에서도 탄력을 받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7년 6월에 이르는 시기의 북중관계는 자국의 처한 상황에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전략적 협력관계를 이어나갔다. 이러한 전략적 협력관계는 이 시기 상호성이 배태된 양국의 활동내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제2절 합의 및 향후 전망

(중략) ...조중관계의 <<붉은 선>>을 우리가 넘어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란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 우리 두 나라사이의 <<붉은 선>>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존엄과 리익,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가 누구이든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우리의 핵보유로선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도 흔들수도 없으며 조중친선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할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유라시아대륙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전략적가치는 날로 상승하고 있으며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선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온 세계에 뻗어있다. 중국은 더 이상 무모하게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위 글은 로동신문 2017년 5월 4일자 6면에 실린 기사문¹⁾이다. 2017년 4월에 들어 중국과 미국이 북한(북핵)문제에 대한 협력관계를 보여주자, 북한이 로동신문에 자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기사를 실은 것이다. 기사문에서 북한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핵전략을 지속할 것임을 밝히며, 만약 중국이 미국과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의 시도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약소국 북한이 어떻게 이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같은 기사문에서 (아래 밑줄 친 부분) 답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 스스로 북한의 지정학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보고 판단하라며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은 약소국인 북한이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대국이긴 하지만, 중국은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략적 딜레마가 있다. 미중관계가 협력적 관계일 때 북한(핵)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지만, 만약 미국과의 관계가 갈등적이라면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여전히 중국에게 버릴 수 없는 카드가 될 것이다.

(중략)... 최근 북한의 새로운 핵, 미사일 도발은 필히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를 초래할 것이며 추가제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충동을 자제할 것이며, 중국은 대북 전면 금수등 극단적인 조치에 쉽게 동의하면 안 된다. ...북한에 석유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고 북중변경을 폐쇄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억제할지 명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북중간 전면적인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중북간 갈등은 한반도에서 가장 심각해질 것이며, 중북 대립이 미북 대립을 넘어서

1) 로동신문 2017년 5월 4일 <조중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이상하지 말아야 한다>

긴장 정세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며 이로써 미국과 한국은 북핵문제를 중국에 떠넘기려는 목적을 이루게 될 거이나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위 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 3일 환구시보에 실린 기사이다²⁾. 2016년 한 해 동안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과 대북 제재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어렵게 유엔대북제재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두고 중국은 또 다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 기사는 대북 전면 금수와 같은 이전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두고 중국이 딜레마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대북 전면 금수 조치와 같은 초강력 대북 제재로 인해 중국의 국가이익이 침해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중국이 북한의 안정이 유지되는 한에서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중국은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완전한 공조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안정이 담보되지 않는 제재를 원하지 않으며, 북미 대결양상이 중북대결로 연결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세계전략(미중관계)과 동북아 전략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운용해 오고 있다. 반대로 북한은 자국의 핵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북미관계, 중미관계 등을 고려한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관계는 본 연구가 진행한 김정은 시기 북중간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협력적 관계일 경우, 예를 들어 3차 핵실험 당시 북핵문제를 중미간 협력의 문제라고 자처하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였다. 반면 4차와 5차 핵실험 때처럼 미국과 갈등적 관계에 있을 경우는 북핵문제의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강력한 대북제재에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물론 북핵문제가 한반도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은 원칙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해 오고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도 핵프로그램을 지속화해오면서 자국의 국내외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맺어 오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울 경우 어김없이 자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상기시키면서 전략적 차원에서 양자관계를 가져오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 시기 중국과 북한은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전략적 협력 또는 갈등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향후 북중관계 역시 양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협력과 갈등의 양자관계를 맺어나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북중관계가 전략적 이해관계라는 매우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북중관계에 대한 몇 가지 함의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의 많은 연구(시각)들은 북중 양자관계를 정상적 국가관계, 전통적 우호관계, 혹은 동맹관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혹자는 일반관계나 특수관계라는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북중양국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중

2) 환구시보, 2017년 9월 3일자. <중국은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관계의 성격 규명은 북중 양자관계의 일부분, 혹은 일정 시기에 적합한 설명이 될 수 있다. 김정은 시기 중국은 자국의 이해가 맞을 경우 '전통적 우호관계'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상적 국가관계'라는 표현으로 북중관계를 규정하곤 하였다. 북한 역시 '피로써 맺은 중조친선'이란 용어로 중국과의 친선을 강조하다가도 북중관계의 소원할 경우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2012년 로동신문에서 '친선' 강조를 강조하다가 2014년 들어서 중국에 대한 기사를 거의 내지 않았다가, 2016년 들어서 다시 '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2012년과 2013년까지 북중 우호관계를 나타내는 16자(字) 방침을 북중간 공식문서에 사용하였다. 2014년 북중간 냉각기 동안 16자 방침이 사라졌다가, 북한과 우호관계를 희망하면서 2015년 1월부터 다시 16자 방침을 언급하고, 공식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다. 즉 북한과 중국은 철저한 국익의 관점에서 자국이 필요시 이러한 용어를 통해 양자관계를 맺어나가는 전략적 이해관계인 것이다.

둘째, 정체성이나 이데올로기 등으로 북중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 역시 주의를 요구한다. 냉전 시기 이데올로기와 정체성 등의 공통점으로 북중관계를 규명하던 때와 달리, 김정은 시기에 들어 냉전 시기 이들을 규정하던 이데올로기, 정체성 등의 개념은 북한과 중국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갖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시기 북한이 중국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갈 때 로동신문은 사회주의 위업 등이나 이데올로기, 정체성 등을 러시아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로동신문의 기사수와 내용을 통해 북한은 중국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위업이나 당사업 발전과 관련하여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러시아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련하여 기사를 내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북중양국은 이들 양자의 상호성에 기초한 전략관계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존재하는 한, 북중 양자관계는 북한이 중국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전략을 갖는가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기존 연구의 시각은 대부분 강대국 중심, 즉 중국의 시각으로 북중관계를 이해하고, 약소국인 북한의 대중인식과 전략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기 북중 양국관계의 전개를 분석한 결과, 북중관계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북한이 중국을 전략적으로 무시(passing)하는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자국의 전략상 북한과의 최소한의 우호적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였고, 이는 중국의 대북정책의 저선(底線, 바텀라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핵실험과 같은 이벤트(사건)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인식이나 전략, 북한의 대중인식이나 전략 등을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 북중 양자가 어떤 관계 속에서 상대국을 살펴보는 지를 긴 시간의 흐름(통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시기 북중

양국은 4차례의 핵실험을 했는데, 핵실험이 거듭될수록 중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해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중국과 북한의 국익을 따져 볼 때, 핵실험 보다는 당시의 중국의 미중관계, 동북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은 중미관계와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의 진전에 따라 양자관계를 진행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핵실험이나 주요한 이벤트(사건)는 북중관계를 파악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으나, 이들 사건이 반드시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구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상대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전략적 토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국의 북한인식과 그에 따른 북한 전략, 북한의 중국인식과 그에 따른 전략을 동시에 분석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이에 맞는 대중전략과 대북전략을 마련하여 북중 양국의 관계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성균관대학교 편, 『북중관계 다이제스트』, 서울: 다산출판사, 2015.
- 이교덕 외, 『북·중간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이기현 외,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 추세분석과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 정덕구, 『중국의 본심: 이성적 친구, 감성적 타인』, 서울: 중앙북스, 2011.
- 정덕구·추수룡 외, 『기로에 선 북중관계』, 서울: 중앙북스, 2013.
-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나. 연구논문

- 강정일, “북중동맹의 공고성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2012).
- 김동준,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요인과 영향력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김성배, “미중시대 북한식 국제정치 독해- 자주외교 불패신화의 유산”, 『EAI국가안보패널 연구보고서』, (2014).
- 김재기,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북중 경제협력”, 『한국동북아논총』, 제66호, (2013).
- 김홍규, “시진핑시기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박근혜 대통령 방중의 의의”, 『전략연구』, (2013).
- 나영주, “북핵문제와 북중동맹-중국의 동맹유지 조약-”, 『통일문제연구』, 제25권 2호, (2013).

- 문홍호,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균형”, 『중소연구』, 제38권 3호, (2014).
- 박동훈·이성환, “북중관계 변화의 동인과 시진핑 시대의 대북정책”, 『국제정치연구』, 제18집 1호, (2015).
- 박용국, “김정은 시대 북핵전략의 딜레마 및 대중정책”, 『중국과 중국학』, 제26호, (2015).
- 박주진·김용호, “북·중 동맹관계의 재고찰-제도와 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8권 1호, (2014).
- 박태홍,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정책의 변화와 원인」,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송종규, 「북한과 중국의 관계변화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신정화, “김정일 정권의 대일정책: 로동신문과 조선신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4집 1호, (2012).
- 이동률, “중국의 대북전략과 북중관계: 2010년 이후 김정일의 중국 방문 결과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9권 3호, (2011).
- 이상우, 「북한의 대중국 외교전략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신욱,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과 동북아 국제관계-북중관계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40권, (2016).
- 이영학,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신북한 정책동향 및 시사점: 4차 및 5차 북핵실험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40권 3호, (2016).
- 이춘복, “북한 3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은 진화하고 있는가”, 『JPI정책연구』, (2013).
- 장용석,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해징전략”,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7호, (2012).
- 장용석, “북중관계의 성격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 『통일과 평화』, 4집 1호, (2012).
- 정주아, 「북한 핵실험 후 북중관계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차창훈,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책임대국과 시진핑의 대북정책 딜레마”, 『한국과 국제정치』, 29권 1호, (2013).
- 홍석훈, “중국의 대북한 외교정책 기조와 전략: 중국 지도부의 인식과 정책선호도를 중심으로

로”, 『정치정보연구』, 17권 1호, (2014).

홍은정,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미중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19권 4호, (2016).

홍은정,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Journal of North Korea』, Vol.2 No.2, (2016).

황지선, 「탈냉전기 북한의 대미·대중 편승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4).

다. 언론

뉴시스, 2016년 7월 12일자.

동아일보, 2015년 3월 31일자.

서울신문, 2014년 7월 24일자.

아주경제, 2016년 9월 11일자.

연합뉴스, 2014년 12월 17일자.

연합뉴스, 2016년 2월 13일자.

연합뉴스, 2016년 6월 6일자.

연합뉴스, 2016년 7월 1일자.

연합뉴스, 11월 2일자.

중앙일보, 2015년 3월 8일자.

통일뉴스 2012년 7월 29일자.

YTN, 2011년 12월 19일자.

2. 북한문헌

가. 언론

『로동신문』 2012년 1월 ~ 2017년 6월까지 915편.

3. 중국문헌

가. 연구논문

任洪生, "国家战略, 经济周期与中朝关系的政治经济学", 『外交评论』, 2016年, 第6期, 22-44页.

时殷弘, "当前中国边外交重大问题", 『领导文萃』, 2016年 9月.

张晶·张雅璐, "国际体系转换背景下的朝鲜半岛与东北亚"研讨会综述", 『现代国际关系』, 2015年, 第1期, 63-64页.

나. 정부기관

주북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kp.china-embassy.org/chn/>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fmprc.gov.cn/web/>

부록. 로동신문 대중기사 목록(2012.1~2017.6)

2012년 1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4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께 중화인민 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1	4	김정은동지께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중국인사가 선물 을 올리였다	
1	4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위이화 동지의 가 족,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대표단과 적십자국제위원회대 표단이 꽃바구니들을 드리였다	
2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 화인민공화국 주석인 후진타오동지가 년하장을 보내어왔다	
2	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찾아 청진주재 중화인민 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총령사관 성원들 경모의 정 표시	
3	6	만민의 존중을 받으시는 김정은동지, 중국출판보도물의 글	
3	6	후진타오주석의 신년사	
2	6	군민관계를 강화할 데 대한 통지문	
4	6	온 세계를 만발하라 김일성화 김정일화여, 위인칭송의 꽃전시 회 중국 다리엔과 선양에서 진행	
6	6	자애로운 그 영상 못 견디게 그리워,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	
8	6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	
8	6	후진타오 총서기 당풍, 청렴정치건설과 반부패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언급	
10	4	조중친선력사에 특기할 의의깊은 공연활동, 가극<량산백과 축 영대>중국순회공연이 성과적으로 끝났다	
10	4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정일동지는 영생하실 것이다	
12	4	중국을 방문하였던 가극 <량산백과 축영대>공연대 귀국	
12	4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한 노력	
13	6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잊을 수 없다, 중국항일혁명렬 사,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 높이 칭송	
15	6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새년도 군사훈련과 관련한 지시 하달	
16	6	새 국방전략을 둘러싼 중미모순	
24	6	중국에서 음력설 경축	

2012년 2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4	중국에 가는 체육성대표단 출발	
8	6	선진군사문화건설에 힘을 넣어	
9	6	자치구에 펼쳐진 새로운 풍경	
10	4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중국에서 회고모임 진행	
12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중국에서 회고모임 진행	
14	6	반중국여론확대에 우려 표시	
15	6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도착	
16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위이화동지의 가족과 일본의 단체와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16	8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연회마련	
17	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국제우호련락회대표단과 환경교육보급계획 집행국장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17	6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찾아, 중국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 청진주재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시아련방 총사령관 성원들, 각지 화교들 경모의 정 표시	
17	6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이 강성번영을 이룩하기를 충신으로 축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기자회견에서 강조	
17	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저우바오중의 딸 저우위이가족, 재로씨야동포 정일심가족, 국제주의 전사, 야,떼,노비첸꼬가족, 영국의 주체사상연구 조직들과 친선단체, 로씨야주체사상연구조직에서 꽃바구니를보내여왔다	
18	4	광명성절에 즈음하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기념글 발표	
18	4	광명성절기념 김정일화전시회, 중국 다리엔에서 진행	
18	5	재중동포들 기념모임 진행	
18	6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더욱 긴장시키는 미국의 군사연습, 중국 신화통신이 비난	
19	6	광명성절기념 김정일화전시회, 중국에서 진행	
20	4	우리나라팀 중국국제여자축구초청경기대회에서 우승	
20	6	령유권문제를 둘러싼 중일마찰	
25	6	후진타오총서기 취업정책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해 강조	

26	4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만발하는 태양의 꽃, 중국에서 열린 광명성절기념 김정일화 전시회장들을 연 수만명 참관, 격동된 심정토로	
26	4	조중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45차회의 진행	
27	6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가족,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인사들, 우리나라 대사관, 대표부 방문	
29	6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넣고 있는 조선, 신화통신이 보도	

2012년 3월

일자	면	제목	비고
7	6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제5차회의 개막	
13	6	레이펑을 따라배우는 활동 활발히 진행	
16	6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진행	
18	6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제5차회의 폐막	
20	6	후진타오주석, 국방 및 군건설의 효율을 높일 데 대해 강조	
21	6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조선, 중국신문글 게재	
24	4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추모대표단 도착	
25	4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25	4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추모대표단 만경대 방문	
26	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청진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로씨야련방총령사관 성원들 화환진정	

2012년 4월

일자	면	제목	비고
5	4	중국인민해방군 외사일군대표단을 위한 연회진행	
5	4	중국인민해방군 외사일군대표단 도착	
5	4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재중조선인예술단 도착	
7	4	인민무력부장 중국인민해방군 외사일군대표단을 만났다	
7	5	중국항일혁명투쟁 연고자가족일행 도착	
7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중국항일혁명투쟁 연고자가족일행 경모의 정 표시	
9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중국항일혁명렬사, 재중항일혁명투사가족일행 경모의 정 표시	

9	5	중국항일혁명렬사, 재중항일 혁명투사가족일행 도착	
10	7	중국인민해방군 외사일군대표단 귀국	
11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가족일행들 경모의 정 표시	
11	6	중국에 가는 문화대표단과 조선영화대표단 출발	
11	8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가족일행들 도착	
11	8	제14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할 중국훈춘 김일성김정일화온실 총경리일행 도착	
12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중항일혁명렬사, 중국항일혁명투쟁 연고자가족일행들, 해외연고자 가족 경모의 정 표시	
12	10	재중동포들 만수대언덕에서 나무심기	
12	10	재중항일혁명렬사,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일행들, 해외연고자가족 도착	
13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축전을 보내어왔다	
13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13	7	재중항일혁명투사, 항일혁명렬사 중국항일혁명렬사, 항일혁명투쟁연고자, 해외연고자가족일행들 만경대 방문	
13	7	중국대사관 성원들 만경대 방문, 꽃바구니 진정	
13	8	재중동포들의 경축모임	
13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화상영주간, 조선우표전시회, 중국에서 개막	
13	8	재중항일혁명렬사,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일행 도착	
14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중항일혁명투사,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중국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일행들 경모의 정 표시	
14	9	재중동포들 만경대 방문	
14	9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중국 광시미술전람회 개막	
14	10	4월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퍼지는 흙모의 정 뜨겁게 굽이치는 공연무대, 중국예술단에서	
15	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15	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15	1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중국외국출판발행사 업국대표단을 만났다	
15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 경축연회, 중국주재 우리 나라대사관에서 진행	
17	4	중국인대외우호협회 및 중조우호협회에서 물자기증	
17	8	재중동포들 경축행사 진행	
17	8	전세기에 의한 하얼빈-금강산국제관광단	
18	7	김일성주석탄생 100돐경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술전람 회 중국에서 개막	
18	7	중국 지린육문중학교대표단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진행	
18	8	태양송가 영원하리라, 우리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재중조선인예 술단 예술인들	
22	6	중국방문 조선로동당대표단 출발	
22	6	조선로동당대표단 베이징 도착	
23	4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사이의 전략대화 진행	
23	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을 만났 다	
24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 화인민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24	4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대표단 도착	
24	6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을 중국 상강봉화위성TV방송이 소개	
25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무관단,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위이 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25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인민일보>여성기자대표단이 선 물을 올리였다	
25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회 총서기 후진타오동지를 의례방문	
25	3	중국임니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중국인민평화군 축협회대표단을 만났다	
25	3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대표단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우의탑에 화환진정	
25	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회 서기서 서기를 만났다	
25	4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로동당대표단 귀국	
25	6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25	6	조선인민군 창건 80돐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 서 영화감상회와 연회진행	
30	2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저우바오중 의 딸 저우위이가족이 선물을 올리였다	

2012년 5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4	끝없이 높뛰는 애국의 심장, 중국 훈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총경리 양홍준동포	
3	4	중국에 가는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대표단 출발	
8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중국국제우호련락 회친선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8	4	중국국제우호련락회친선대표단 도착	
8	4	중국에 갔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 귀국	
9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중국국제우호련 락회친선대표단을 만났다	
9	4	중국국제우호련락회친선대표단 우의답에 화환진정	
9	4	중국국제우호련락회에서 물자기능	
10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국제우호련락회와 로씨야신문 빠 뜨리오뜨 책임주필이 선물을 보내여왔다	
12	4	중국국제우호련락회친선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13	4	중국방문 조선청년친선대표단 출발	
14	6	중국공산주의청년단창립 90돐 기념대회 진행	
18	4	중국대사관 성원들 택암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19	4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청년친선대표단 귀국	
23	4	중국방문 과학백과사전출판사대표단 출발	
26	6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전람회 중국에서 진행	
29	4	중국방문 혁명가극 <꽃파는처녀>공연대 출발	
29	4	중국방문 조선기자동맹대표단 출발	
29	4	중국 국가공산행정관리총국대표단 도착	
30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중국국가공상 행정관리총국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30	4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대표단 여러곳 참관	
31	3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2012년 6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2010년, 2011년에 진행하신 력사적인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을 기념하여 중국특명전권대사 연회마련	
1	4	중국에서 진행된 국제경기대회들에 참가하였던 우리선수들귀국	
1	4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대표단 귀국	
5	4	중국을 방문하였던 과학백과사전출판사대표단 귀국	
5	4	중화전국부녀련합회대표단 도착	
6	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 중화전국부녀련합회 대표단을 만났다	
7	8	중화전국부녀련합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7	8	중화전국부녀련합회대표단 우의탑에 화환 진정	
8	6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기자동맹대표단 귀국	
8	6	중화전국부녀련합회대표단 귀국	
16	6	조선인민의 자랑 희천발전소, 중국신화통신이 보도	
20	4	조선의 예술은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예술, 혁명가극<꽃파는 처녀>를 관람한 중국관중들의 감탄	
23	4	예술의 최고경지를 보여준 불후의 명장,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본 중국관중들의 반향	
23	6	대지에 참고넘친 위인칭송의 열풍	
26	4	중국방문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출발	
26	4	중국농립수리공화대표단 도착	
27	4	중국영화대표단 도착	
28	4	중국출판보도물들 혁명가극<꽃파는 처녀>를 광범히 소개	
28	4	중국농립수리공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29	4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과학기술총련맹대표단 귀국	
30	4	중국농립수리공회대표단 귀국	

2012년 7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5	월남, 중국방문 국가품질 감독위원회대표단 출발	
2	4	중국을 방문하였던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 귀국	
5	4	황홀하고 신비한 세계가극계의 걸작-중국출판보도물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대대적으로 소개	
5	4	중국 옌비엔대학 공학원 주임에게 박사학위 수여	
7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중국대사관, 국제기구대표부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9	4	경탄을 자아내는 완벽하고 손색없는 가극 혁명극 <꽃파는 처녀>공연 난창시에서 성황리에 진행	
10	4	중국방문 사회과학원대표단 출발	
11	4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1돐에 즈음하여- 연회진행/중국주재 우리나라대사관에서 연회	
11	6	조중친선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재부	
12	4	조중후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1돐에 즈음하여- 중국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13	4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1돐에 즈음하여- 중국에서 연회진행	
13	4	제1차 비행기에 의한 예진-금강산 국제관광단 도착	
15	4	중국에 가는 조선영화대표단 출발	
15	4	중국방문 친선대표단 출발	
15	4	월남과 중국을 방문하였던 국가품질감독위원회대표단 귀국	
17	4	중국을 방문하였던 사회과학원대표단 귀국	
17	4	제1차 비행기에 의한 연지-금강산국제관광단이 떠나갔다	
18	4	조중합작애슬영화 <평양에서의 약속>시사회, 중국에서 진행	
19	4	중국 라오스방문 외교단 사업총국친선대표단 출발	
25	4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인민보안부대 표단을 만났다	*비중
25	4	인민보안부대표단 중국공안부대표단과 회담	*비중
25	4	중국방문 인민보안부대표단 출발	
25	4	중국에 갔던 조선영화대표단 귀국	
25	4	중국을 방문하였던 친선대표단 귀국	
25	4	평양-상하이 국제항로에 의한 중국 상하이지역관광단 도착	
30	4	최고의 걸작, 상상을 초월하는 일류급가극, 중국관중들 혁명가 극 <꽃파는 처녀>를 보고 걱정 토로	
31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 외련락부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마련	*비중
31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대표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대표단과 회담	
31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대표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대표단과 회담	
31	5	중국을 방문하였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공연대 귀국	
31	5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대표단 도착	
31	6	후진타오주석 당제18차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할 것을 호소	

2012년 8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1	4	중국인민해방군창건 85돐에 즈음하여 중국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1	4	중국, 웰남방문 김일성종합대학대표단 출발	
1	4	중국, 라오스를 방문하였던 외교다사업중국친선대표단 귀국	
1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수상의 발언 비난	
3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비중
3	4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대표단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과 여러곳 참관	
3	4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대표단 우의탑에 화환진정	
3	6	선군정치와 함께 발전하는 조선의 경제건설,중국인민일보의 글	
4	4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표단 귀국	
4	6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창건 85돐 기념	
5	6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당외인사들과의 좌담회 마련	
5	6	중국외교부대변인 미국의 제재조치 비난	
10	4	인류문화예술의 만년재보,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공연대 중국에서 대성황리에 30여회 공연, 5만여명 관람	
10	6	중국국무원총리, 큰물 태풍피해방지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 *참고:8/13 1면 큰물피해복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13	4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장징롱의 비 제막식 진행	
13	4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을 중국통신이 소개	
14	4	중국에 가는 조중공동지도위원회대표단 출발	
15	4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제3차회의 진행	*비중
16	6	중국신문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소개	
17	4	조중공동지도위원회대표단 지린성, 랴오닝성 체류	
18	2	중화인민공화국주석 후진타오동지 조중공동지도위원회대표단 접견	
18	2	중화인민공화국 총리 원자바오동지가 조중공동지도위원회대표단을 만났다	
19	4	중국에 갔던 조중공동지도위원회대표단 귀국	
19	6	중국에서 당제18차대회준비사업 적극 추진	
20	6	중국에서 항일전쟁 및세계반파쇼전쟁승리기념 평화집회 진행	

22	4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대표단 도착	
29	4	중국 연변대학 교원들에게 박사학위수여	

2012년 9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4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도착	
2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중화전국기자협회에서 선물을 보내어 왔다	
5	4	중국에 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출발	
6	4	주조 전 중국특별전권대사 일행, 우의탑에 화환진정	
6	4	중국에 가는 정부경제무역대표단 출발	
6	4	중국연변대학 교원에게 박사학위 수여	
7	4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10	6	사회적진보와 국방력강화를 위하여-중국에서-	
11	6	중국신화통신, 일본의 광면주의책동 단죄	
12	4	중국출판일군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13	4	중국청년친선 대표단 도착	
13	4	중국출판일군 대표단 귀국	
14	4	조중청년친선련환모임 진행	
14	6	호금도주석, 조어도문제와 관련한 립장표명	
15	6	중국외교부, 일본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는 성명발표	
15	6	중국신문, 우리나라 과학기술성과 소개	
16	4	중국에 가는 국가과학원대표단 출발	
16	4	중국에 갔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귀국	
17	4	중국청년친선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17	6	중국신문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 비난	
20	6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위험한 장난을 하지 말 것을 일본에 요구	
21	6	우리나라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람회, 중국 로씨야에서 개막	
21	6	조선평양-중국 연변친선도서관 개관	
22	6	중국에서 9.18사변 81년을 맞으며 행사 진행	
23	4	조중친선의 화원속에 꽃피난 또 하나의 감동깊은 소행 -중국선발 선원들이 사경에 처한 우리 어로공들을 구조	
24	4	우리나라 도서, 사진전시회 중국에서 진행	
24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우익분자들의 도발행우에 항의	
25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중국손님들 경모의 정 표시	
25	5	중국국가라디오영화 TV방송총국대표단 도착	

25	5	중국과학원대표단 도착	
25	6	일본의 행동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중국국가부주석 강조	
27	4	중화인민공화국창건 63돐에 즈음하여, 대외문화련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에서 연회마련	
27	4	보건성에 중국위생부에서 협조물자 기증	
27	6	중국단체들, 일본의 부당한 처사 규탄	
28	4	중화인민공화국창건 63돐에 즈음하여, 주조 중국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28	5	중국국가라디오영화 TV방송중국대표단, 중국과학원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28	6	중국공산당 제18차대회를 앞두고	
29	5	중국국가라디오영화TV방송중국대표단 귀국	
29	5	중국과학원대표단 귀국	
30	6	중국외교부 부부장, 일본의 반성을 요구	
30	6	진정한 인민의 나라	

2012년 10월

일자	면	제목	비고
2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상의 주장을 배격	
3	6	중국에서 공화군창건 63돐 경축	
3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자기나라 인민의 정의의 목소리를 똑바로 대할 것을 일본에 요구	
4	4	중국농업단대표단 도착	
5	4	우리나라 농업성과 중국농업부사이의 농업부문 협조에 관한 량해문 조인	
6	4	중국농업부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6	6	깊은 력사를 가지고 강화발전되는 조중친선	
7	4	중국농업부대표단 귀국	
7	4	제1차 비행기에 의한 대련-금강산국제관광단이 떠나갔다	
7	6	중조친선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있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 강조	
9	4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당찬건기념탑과 룡라인민유원지 참관	
9	4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대표단 도착	
9	6	중국기행, 절세위인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력사의 땅을 찾아서	
11	5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11	6	중국신화통신 일본의 꾀롭치한 처사 단죄	
12	4	중국방문 외국문출판사대표단 출발	

14	4	조중친선주간행사 개막	
14	4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단동에서 진행	
15	6	인민생활개선에 힘을 넣고 있는 조선, 중국 인민일보의 글	
15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우익분자들의 도발행위 비난	
16	4	조중친선주간 부문별행사들 진행	
17	6	중국외교부 대변인 미국과 일본을 배격	
18	4	중국대사관 성원들 택암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19	4	중국을 방문하였던 외국문출판사대표단 귀국	
20	6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중국 훈춘에서 진행	
20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미합동군사연습 비난	
21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허위주장, 부당한 시도 단죄	
23	4	중국인정부대표단 도착	
23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이 력사를 바로 대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	
25	4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 준공	*비중
25	4	중국에 가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대표단 출판	
25	6	중국 일본의 성노예범죄부정책동 단죄	
26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중국인정부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26	4	중국인민지원군 조서전선참전 62돐에 즈음하여, 우의탑에 호환진정	
26	4	중국인정부대표단 만경대 방문	
26	6	중국외교부대변인, 분쟁격화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주장	
27	4	중국공산당료녕성 단동시위원회대표단 만경대 방문여러곳 참관	
27	4	중국인정부대표단 귀국	
28	4	중국공산당 료녕성 단동시위원회대표단 귀국	
31	2	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 서거 75돐 생일 100돐 기념행사진행	

2012년 11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6	중국정부 조어도문제와 관련한 립장 천명	
2	4	중국방문 교육위원회 일군대표단 출발	
2	6	중국신문, 우리나라 영화를 소개	
4	4	중국에 갔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대표단 귀국	
4	6	아시아지역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무모한 움직임, 중국 인민일보의 글	
5	6	미국은 아시아의 안전을 파괴하는 일은 삼가라 중국 인민일보	

		의 글	
6	6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7	4	중국에 있는 인민군렬사묘 준공식 진행	
7	4	중국을 방문하였던 교육위원회 일군대표단 귀국	
7	4	중국에 갔던 국립교예단 귀국	
8	6	일본은 령토문제를 가지고 그 어떤 흥정도 할 권리가 없다, 중국 신화통신이 강조	
9	6	꽃파는 처녀 다시보다도 눈물바다, 중국신문의 글	
10	6	중국공산당 제18차대회 개막	
11	6	중조친선은 영원할 것이다, 중국 국가라디오영화TV방송총국 부총국장의 반향	
12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부당한 책동 규탄	
13	4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64차 회의에 참가할 우리측 대표단 출발	
13	4	재중조선인녀성대표단 도착	
13	4	중국국가체육총국 대표단 도착	
15	4	2013년 조중체육교류의정서 조인	
15	6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만발할 태양의 꽃, 중국 대련에서 진행된 국화전시회 김정일화 전시대를 돌아본 참관자들 걱정토로	
15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조어도문제에 대한 립장 재천명	
16	6	중국공산당 제18차대회 폐막	
16	6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8기 제1차전원회의 진행	
17	5	중국 국가체육총국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17	5	중국국가체육총국대표단 귀국	
19	6	중국 인민권문제에서의 정치화와 이중기준적용 반대	
20	4	중국방문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 출발	
21	4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64차 회의에 참가하였던 우리측대표단 귀국	
22	4	재중조선인녀성대표단이 떠나갔다	
23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우익세력의 달라이라마지지책동 단죄	
26	4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 귀국	
30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이 동상에 중국공산당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30	4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중국공산당대표단 회담	
30	4	중국공산당대표단 도착(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건국, 왕자루이)	
30	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중국공산당대표단을위하여연회	

		마련	
30	6	중국인민해방국 총정치부 당대회정신을 학습, 관찰할 것을 요구	

2012년 12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1면전체
1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중국연변대학 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1	4	중국공산당대표단 우의탑에 회환 진정	
1	4	중국공산당대표단 귀국	
1	4	중국 연변대학대표단 도착	
1	6	중국일본의 도발행위 단죄	
2	6	중국외교부 대변인, 국가주권을 수호할 정부가 확고한 의지천명	
3	4	중국 연변대학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3	6	습근평총서기 위대한 부흥의 목표를 향해 전진할데 대해 강조	
4	6	중국 미국과 서방의 주장배격	
6	4	중국 연변대학대표단 귀국	
8	4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의 회고모임	
8	6	습근평총서기, 헌법을 전면적으로 관철집행할데 대해 강조	
9	1	김정은령도자께서 지난 1년간 새로운 형상, 새로운 기사를 보여 주시였다 중국신문글발표	
10	6	습근평총서기, 부대의 정치사상건설을 강화할데 대해 언급	
11	6	당제18차대회정신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12	6	중국 조서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 배격	
14	5	중국연변대학 교원들에게 박사학위 수여	
14	5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도착	
14	6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모략 중상행위를 단죄한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성명 발표	
15	5	중국항일혁명렬사, 재중항일혁명투사,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해외연고자가족일행들 도착	
17	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김정일 서거 1돌)	
18	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전문을 보내여왔다	*총8면

18	6	위대한 김정일 서거 1돐에 즈음하여 중국당과 국가지도간부들 우리나라 대사관 방문	
18	6	중국심양조선족경제인협회대표단 도착	
19	2	중국항일혁명렬사, 재중항일혁명투사,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재로씨야동포, 해외연고자가족 일행들을 위한 위로연 진행	
19	4	재중동포대표단들 만경대 방문	
20	4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일행 귀국	
23	6	중국항일혁명렬사, 재중항일혁명투사 가족일행들이 떠나갔다	
25	6	중국에서 중앙경제사업회의 진행	
26	6	위대한 혁명가의 한생, 중국항일혁명렬사,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재중항일혁명투사 자녀들이 강조	
28	6	중국외교부 대변인 미국회의 부당한 처사 비난	
30	2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호금도동지와 온가보동지가 년하장을 보내여왔다	
31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올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2013년 1월

일자	면	제목	비고
2	6	호금도주석의 신년사	
4	6	인민의 기쁨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곳, 중국신문 글 게재	
10	4	조중 두나라 정부사이의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조인	
10	4	조중 두나라 정부사이의 경제, 무역,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회의 진행	
10	6	습근평총서기 빈곤구제 및 개발사업에 대해 언급	
11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정부경제무역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11	4	중국정부경제무역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12	4	중국정부경제무역대표단 귀국	
13	6	습근평총서기 정법사업을 잘할데 대해 강조	
15	6	중국외교부대변인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책동 단죄	
16	6	중국외교부대변인 일본수상의 주장배격	
19	6	도서 <나의 아버지>중국에서 발행	
21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주권침해책동에 경고	

2013년 2월

일자	면	제목	비고
4	5	전면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산하 조직들 모임 진행	
5	5	군사대국화책동은 자멸행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무국장 담화 발표	
15	4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표단 도착	
17	5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중국대사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17	5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상 모자이크벽화를 찾아 청진주재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총령사관 성원들 경모의 정 표시	
20	5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2013년 3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4	5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실것이다 재중동포단체, 일군 성명, 담화 발표	
14	6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 12기 제 1차회의 진행	
16	6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2기 제 1차회의에서 국가지도간부들을 선거	
17	5	재중조선인총련합회결성 22돐 기념모임 진행	
20	6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1차회의가 진행되었다	
21	6	조선이 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였는가, 누가 전쟁을 바라는가 중국인터넷의 글	
24	5	핵몽둥이를 휘두르는 자들과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 재중동포단체들 성명 발표	
26	6	습근평주석 로씨야 방문	

2013년 4월

일자	면	제목	비고
3	6	습근평주석 아프리카나라들을 방문	
5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수상의 야스구니진자참배시도에 경고	
6	4	재중조선인예술단 도착	
9	6	미체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밟개버리자 재중동포단체들 성명 발표	

14	4	중국방문 창덕학교친선대표단 출발	
19	4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이 떠나갔다	
23	6	습근평주석 지진피해와 관련한 중요지시 하달	
25	6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사천성지진피해복구사업	

2013년 5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6	중국에서 2012년 미국의 인권기록 발표	
3	6	습근평주석 로동계급이 본보기역할을 할데 대해 강조	
5	6	중국 일본의 부당한 처사 비난	
14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이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할 것을 요구	
24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이 역사를 심각히 반성할 것을 요구	
27	6	중국국방부 미국의 보고서 배격	
28	6	습근평주석 재해구조사업을 다그칠데 대해 언급	
31	6	습근평총서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산 및 생활환경을 마련해줄 데 대해 강조	

2013년 6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6	중국 일본극우익정객의 망발 규탄	
5	6	습근평주석 안정된 중국을 건설할데 대해서 강조	
6	6	습근평주석 특대형화재사고와 관련한 중요지시 하달	
9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주장 배격	
18	6	습근평주석 우주강국을 건설할데 대해 강조	
25	4	평양연극영화대학과 중국 베이징영화학원사이의 친선대학관 계설정에 관한 합의서 조인	
25	4	중국방문 조선기자동맹대표단 출발	
27	6	중국 대화를 통한 이란 핵문제해결립장 강조	

2013년 7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4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기자동맹대표단 귀국	
1	4	중국에 갔던 친선대표단 귀국	
4	6	습근평총서기 당의 군중로선교양 및 실천활동을 실속있게 벌릴 데 대해 언급	
6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이 역사와 현실을 바로 볼 것을 요구	

11	4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2돐에 즈음하여 연회진행	
11	4	중국을 방문하였던 과학백과사전출판사대표단 귀국	
12	4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2돐에 즈음하여 중국특별전권대사 연회마련	
12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과거죄행부정책동 비난	
13	4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2돐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중국에서 연회마련	
19	6	중국 일본의 방위백서 규탄	
20	4	중국항일혁명투쟁 연고자 가족일행 도착	
24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과 중국항일혁명 투쟁연고자가족이 꽃바구니들을 드리였다	
24	1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24	2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에 대하여	
24	6	중국중앙군사위원회 군대에서 당풍 및 청렴정치 건설에서의 책임제를 실행할데 관한 규정 인쇄발행	
26	1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승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26	4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 도착	
26	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을 만났다	
26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대표단과 중국인민지원군 로병 및 련사가족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마련	
26	6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중국항일혁명렬사, 재중항일항일혁명투사,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재중항일혁명투쟁 연고자 가족일해들, 해외동포대표단들, 일본 교도통신사 특별고문 외국손님들 도착	
27	3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승 60돐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들을 만나시였다	
27	3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27	4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전승절에 즈음하여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아리랑>>을 관람하시였다	
27	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대표단과 중국인민지원군 로병 및 련사가족대표단, 에짚트 정계인사, 외국손님들이 선물을 드리였다	
28	11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기념훈장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들과 로씨야 조선전쟁로병대표단 성원들에게 수여	
30	6	인민무력부장이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대표단, 중국인민지원군 로병 및 련사가족대표단을 만났다	
30	8	중국의 대표단들 만경대 방문	
30	8	중국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 먼거리의료봉사국제회의대표단 도착	
30	8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대표단 중국인민지원군렬사묘에 화환 진정	

2013년 8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5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대표단,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대표단 귀국	
1	5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재중항일혁명투사, 항일혁명렬사, 항일혁명투쟁연고자, 해외연고가족일행들이 떠나갔다	
1	6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미술전시회, 우표전시회 중국에서 개막	
1	6	습근평주석 유인우주비행사업의 성과에 대해 언급	
2	4	중국인민해방군창건 86돐에 즈음하여 중국대사관 국방무관 연회 마련	
3	4	압록강에 펼쳐진 뜨거운 친선의 화폭 중국 립강시변방대에서 사경에 처했던 중강군 농장원들을 구원	
3	6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창건 86돐 기념	
6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 부수상의 망발 규탄	
6	6	압록강반에 올려퍼진 중조친선의 노래 중국신문의 글	
7	6	습근평총서기 해양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데 대해 강조	
12	6	중국 일본정객들의 야스구니진자참배시도 단죄	
15	6	중국국무원 가물방지사업을 잘할데 대한 통지문 발표	
19	6	중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지정도서 및 영화와 관련한 통지문	

		하달	
20	6	중국외교부 일본내각성원들의 야스쿠니잔자참배 규탄	
21	6	중국에서 당의 군중로선교육 및 실천활동에 관한 도서 출판	
23	6	중국국가주석 보건대외원조사업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	
24	6	중국국가주석 큰물방지및재해구제사업과 관련한 중요지시하달	
27	4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일행 도착	
28	6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은 영원하리	
29	4	중국정부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일행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29	6	중국국무원 총리 재해방지 및 구제사업을 잘할데 대해 언급	
31	4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일행 귀국	

2013년 9월

일자	면	제목	비고
5	6	중국에 가는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 출발	
7	4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도착	
9	8	선군시대의 자랑찬 창조물 신평금강명승지 준공식 진행	
12	4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12	4	중국에 갔던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 귀국	
12	6	공화국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중국에서 연회 마련	
14	4	중국국가당안국대표단 귀국	
15	6	여러 대상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조선 중국의 인민일보 우리 나라 소개	
16	6	습근평주석 여러 나라 방문	
20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1	4	중국홍십자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21	4	중국홍십자회대표단 귀국	
22	4	중국방문 조선농업근로자동맹대표단 출발	
22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수상의 발언 비난	
24	4	2013년 노디크웨이즈와싸 중국-조선국제자전거관광축전 진행	
27	4	중화인민공화국창건 64돐에 즈음하여 대외문화력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에서 연회 마련	
28	4	조중 두 나라 친선협회결성 55돐기념	

2013년 10월

일자	면	제목	비고
----	---	----	----

1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박봉주동지와 함께 중국의 당과 국가령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1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조우호협회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1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중조우호협회대표단을 만났다	
1	4	중조우호협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1	4	중조우호협회대표단과의 친선모임 진행	
2	6	습근평주석 도덕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벌릴데 대해 강조, 란회를 따라배울데 대한 중요지시 하달	
3	6	중국에서 공화국창건 64돐 경축	
5	4	중국에 가는 우리나라 올림픽위원회대표단 출발	
5	6	중국 일본침략력사를 뒤집으려는 행위 배격	
6	6	친선관계발전의 힘있는 추동력	
7	6	습근평총서기 과학기술사업과 교육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해 강조	
8	6	북남관계개선의 방도는 공동선언리행에 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이 주장	
9	4	조중 두 나라 정부사이의 새 계획년도 문화교류집행계획서 조인	
9	6	습근평주석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방문	
10	6	중국에 가는 조중친선협회대표단 출발	
10	6	중국에 갔던 김책공업종합대학대표단 귀국	
11	5	조중 두 나라 친선협회결성 55돐기념 우리나라 미술작품전시회 중국에서 개막	
12	6	친선관계발전의 추동력	
13	4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65차 회의에 참가할 중국측대표단 도착	
14	6	중국 일본수상의 야스구니진자 참배시도에 경고, 외상의 발언 배격	
15	6	우리 조국에 핵위협을 가하는 미제를 단죄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성명 발표	
16	5	중국방문 설계일군대표단 출발	
18	6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는 조선 중국신문의 글	
19	4	조중청년친선련환모임 진행	

19	6	습근평주석 군중과의 사업방법을 혁신할데 대해 강조	
20	4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리원조동지가 조선청년친선대표단을 만났다	
20	4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청년친선대표단 귀국	
21	6	중국신문 우리 나라 칠보산을 소개	
22	4	중국방문 조선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 출발	
22	4	중국을 방문하였던 설계일군대표단 귀국	
22	6	조선국립민족예술단 찬란한 민족문화예술 선사 중국신문의 글	
23	4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도착	
25	6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위훈은 조중친선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하리 전화의 불길속에서 두터워진 동지적우의와 친선	
26	4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3돐에 즈음하여 우의탑에 화환 진정	
27	4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27	4	중국방문 최고검찰소대표단 출발	
28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정객들의 야스구니진자참배 규탄	
29	4	중국방문 로동신문 대표단 출발	
29	4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귀국	
30	6	중국의 TV방송 2013년 조선기행을 방영	
30	6	야스구니진자참배는 절대로 일본내정이 아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언명	
31	5	중국대사관 성원들 택암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31	6	중국국방부 대변인 일본의 군사적움직임에 경고	

2013년 11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도발행위배격	
2	4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가 로동신문 대표단을 만났다	
2	6	중국외교부대변인 일본수상의 망언을 비난	
4	4	중국을 방문하였던 로동신문 대표단 귀국	
4	4	중국을 방문하였던 최고검찰소대표단 귀국	
4	6	중국 일본에 군비확장의 진의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	
5	4	중국방문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 출발	
5	4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일행 도착	
6	6	습근평서기 살림집문제 해결에 큰 힘을 넣을 데 대해 언급	
7	6	중국에서 도서<과학적발전관학습요강>발행	
8	6	습근평주석 여성들과의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9	6	중국국방부 진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일본이라고 폭로	
11	4	중국을 방문하였던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 귀국	
11	6	습근평총서기 전군당건설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12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조어도 분쟁에 대한 미국의 간섭배격	
13	6	습근평주석, 우수한 군사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에 대해 언급	
14	6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15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당국자의 망발 배격	
17	4	중국에 가는 인민대학습당대표단 출발	
17	6	중국 반꾸바봉쇄를 끝장낼 것을 호소	
17	6	중국기행-세월이 흘러도 더욱 뜨거워지는 친선의 정	
19	6	중국외교부 대변인 미국의 인종차별행위 비난	
19	6	중국, 로씨야 인디아외무상회의 진행	
20	6	사회적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	
22	6	중국기행-친선의 정 뜨겁게 넘치는 대지	
23	4	조중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0돐에 즈음한 연회진행	
24	4	조중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0돐에 즈음하여 중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연회마련	
24	4	조중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0돐에 즈음하여 중국 특별전권대사 연회 마련	
27	6	중국외교부 대변인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책동 비난	
28	6	중국 조어도주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배격	
28	6	중국신문, 우리탁구선수들 소개	
29	4	중국에 갔던 체육성대표단 귀국	
29	4	중국을 방문하였던 민주조선사대표단 귀국	
29	6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단장이 강조	

2013년 12월

일자	면	제목	비고
2	4	조중공동미술전시회-중국에서 개막	
2	4	조중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0돐에 즈음하여, 중국에서 연회마련	
4	6	중조친선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중국손님들의 반향	
6	6	<봄의 도시에 진달래 만발하였네>중국 인민일보의 글	
9	6	습근평총서기 경제부문 과정에 대해 언급, 에이즈예방치료사업을 잘할데 대해 강조	

12	6	습근평주석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할데 대해 강조	
15	4	중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영화감상회 진행	
15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도발적인 기도를 배격	
16	5	위대한 김정일동지회고모임 중국에서 진행	
16	5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도착	
16	5	재중동포대표단들 도착	
16	5	중국항일혁명렬사,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해외연고자가족들 도착	
22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도발적인 행위비난	
24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부정적인 태도를 배격	
26	4	김정일화전시회, 중국대련에서 진행	
27	6	김정일화전시회, 중국심양에서 진행	
28	6	일본을 위험한 경지로 몰아가고 있는 아베, 중국의 신화통신이 보도	
31	4	중국 연변대학 교원들에게 박사학위 수여	

2014년 1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3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 진달래아동기금 회장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1	8	민족성과 시대적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조선그림 중국신문이 소개	
2	3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찾아 청진주재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총령사관 성원들 경모의 정 표시	
2	6	습근평주석의 신년사	
3	6	특색있게 꾸려진 미림승마구락부	
4	6	중국에서 모택동동지탄생 120돐 기념좌담회	
7	6	중국외교부대변인 일본집권세력의 무분별한 처사 규탄	
13	5	남조선당국은 선택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발표	
15	6	우리나라영화 <꽃파는 처녀>중국신문이 소개	
18	6	평양은 가는 고마다 새로운 풍경, 중국 인민일보 우리나라 방문기 게재	
19	6	습근평주석 정법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개선 강화하며 과학기술발전에 힘을 넣을데 대해 강조	
21	6	습근평총서기 당풍, 청렴정치건설과 반부패투쟁을 강화할데 대	

		해 언급	
22	4	2014년 조중친선 설명절합동공연 진행	
22	6	중국 일본의 침략력사에 대한 그릇된 태도 비난	
23	4	새해와 설명절에 즈음하여, 중국특명전권대사 친선모임 마련	
23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그릇된 태도 비난	
24	4	2014년 조중친선 설명절련환모임 진행	
24	6	중국의 출판보도물들 마식령스키장을 소개	
27	6	중국외교부 안중근렬사에 대한 일본이 모독행위 배격	
28	4	중국특명전권대사 외무성 일군들과의 친선모임 마련	
29	6	중국신문, 일본을 가석방된 범인으로 낙인	
31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집권자의 발언 배격	

2014년 2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6	중국에서 음력설 경축	
2	6	주목되는 중국의 대일강경립장	
5	5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 하여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 해림시지부 성명 발표	
12	4	새해에 즈음하여 외무성에 중국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마련	
13	4	제18차 김정일화축전에 참가할 중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도착	
14	5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들 경축행사 진행	
14	5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도착	
14	5	명성절경축 영화감상회 중국에서 진행	
14	6	중국외교부 대변인 미국무장관과 일본집권자의 비난 배격	
15	4	광명성절경축연회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	
16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 스위스조선 위원회, 일본의 단체와 인사가 꽃바구니를 보내어 왔다	
16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 심양조선경제무역투자자문유한 공사 리사장일행이 선물을 드리였다	
16	5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중국대사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17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찾아 청진주재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 련방총령사관 성원들 경모	

		의 정 표시	
17	4	중국대사관 성원들 제18차 김정일화축전장 참관	
17	5	중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17	5	광명성절경축행사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진행	
17	5	태양으로 빛나는 자애로운 영상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높이 칭송	
18	4	중국외교부 대표단 도착	
18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방송협회 리사의 발언 비난	
19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불순한 기도를 단죄	
20	4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중국외교부대표단 경의 표시	
20	4	중국외교부대표단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20	4	광명성절경축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	
20	5	제18차 김정일화축전에 참가하였던 중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떠나갔다	
21	4	조중문화협조에 관한 협정과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체결 55돐에 즈음한 연회 진행	
21	4	중국외교부대표단 귀국	
22	4	중국에서 조중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과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체결 55돐에 즈음하여 연회	
22	6	조선식사회주의병원을 찾아서 중국에서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을 소개	
23	4	조중문화협조에 관한 협정과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체결 55돐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	
24	6	중국 일본이 무기급핵물질을 보유하고있는데 대해 우려 표시	
28	4	조중문화협조에 관한 협정과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체결 55돐에 즈음하여 중국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2014년 3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6	중국외교부 미국집권자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	
2	6	중국 신화통신 일본의 강화되는 우경화책동 규탄	
3	6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그만두어야 한다 중국의 제4언론이 주장	
3	6	습근평총서기 사상도덕건설의 강화와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	

		력의 현대화에 대해 언급	
5	6	조선인민의 친근한 모습을 소중히 간직될 것이다 중국 길림성가무단 단장이 강조	
5	6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 개막	
7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일본정객들의 무분별한 행위 단죄	
7	6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2차회의 개막	
11	4	중국방문 국가관광총국친선참관단 출발	
14	6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 폐막	
15	6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2차회의 폐막	
16	6	평화와 안전의 파괴자인 미국의 정체는 가리울수 없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 재로조선공민중앙 협회 부회장 담화 발표	
20	4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일행 미리승마구락부와 메아 리사격관 참관	
20	6	양키 미제는 제 소굴로 돌아가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성명 발표	
21	4	중국을 방문하였던 국가관광총국친선참관단 귀국	
21	6	미국은 조선의 총대의 위력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성명 발표	
22	6	중국 핵물질초과보유문제를 설명할 것을 일본에 요구	
28	4	중국방문 조선로동당 경제부문 일군참관단 출발	
28	6	습근평총서기 당의 군중로선교육 및 실천활동에서 간부들이 앞 장설데 대해 강조	
29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베닌 마티어 껌레꾸기금과 중국 략정중 련석탄 판매유한공사 총경리가 선물을 드리였다	

2014년 4월

일자	면	제목	비고
6	6	중국외교부 대변인 평화에 유익한 일을 할것을 일본에 요구	
6	6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에 대한 감동깊은 추억	
11	5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로동당 경제부문 일군참관단 귀국	
11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회고모임 중국에서 진행	
12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2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전람회 중국에서 진행	
16	5	태양정경축 조선 문화예술의 밤 행사 중국에서 진행	
22	6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빛 내여주신 전설적 영웅	

		재중동포들 경축행사 진행	
--	--	---------------	--

2014년 5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5	중국 국가관광국친선참관단 귀국	
6	4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대표단 도착	
7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7	4	중국방문 조선평화옹호전국 민족위원회대표단 출발	
9	4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11	6	급격히 침몰하고있는 박근혜시대 중국의 인터넷 신문에 실린 글	
13	5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대표단 귀국	
13	5	중국장애인연합회대표단 도착	
14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장애인연합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16	4	중국장애인연합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17	6	중국장애인연합회대표단 귀국	
20	4	중국방문 조선기자 동맹대표단 출발	
23	6	로씨야대통령 중국 방문	
27	4	중국대사관 성원들 택압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30	4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기자동맹대표단 귀국	

2014년 6월

일자	면	제목	비고
3	6	중미마찰을 더욱 격화시키는 기소늘음	
4	6	관계발전을 추동한 중로수뇌상봉	
14	6	만민의 열화같은 존경과 흠모의 분출 김정일화전시회 중국의 대련과 심양에서 진행	
16	6	더욱 첨예화되는 중미마찰	
18	4	모택동반명명 55돐 기념 친선모임 진행	
18	6	싸이버공간을 둘러싼 중미사이의 마찰	
23	6	습근평주석 공군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할데 대해 언급	
27	5	미제와 괴로역적패당의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발표	
28	4	조중 두 나라 정부사이의 원정-권하 새 국경다리의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	--	-------------------	--

2014년 7월

일자	면	제목	비고
5	5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일행 도착	
6	5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도착	
10	5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 해외연고자가족들 꽃바구니 진정	
10	5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10	6	애국애족의 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떨쳐나서자-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13	4	재중동포대표단들 만경대 방문	
13	6	중국 당내에서 부정부패행위를 감행한 고위급간부들을 제명	
14	4	재중동포대표단들이 떠나갔다	
26	2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과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2014년 8월

일자	면	제목	비고
30	5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해림시지부 성명발표	

2014년 9월

일자	면	제목	비고

2014년 10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0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무관단,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 일본의 단체들, 공화국영웅 안동수 유가족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10	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채택모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에서 진행	

2014년 11월

일자	면	제목	비고

8	5	반공화국빠라살포란동을 규탄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 담화발표	
---	---	-------------------------------------	--

2014년 12월

일자	면	제목	비고
----	---	----	----

2015년 1월

일자	면	제목	비고
5	5	민족번영의 진로를 밝힌 휘황한 설계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접한 재중동포들의 반향	
13	5	남조선당국은 동족을 겨냥한 전쟁연습과 대결소동을 중지해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 담화 발표	

2015년 2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5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15	6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경축행사들 진행	
17	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재중동포단체들의 축전채택모임 진행	

2015년 3월

일자	면	제목	비고
31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2015년 4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3	4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표단 도착	
13	4	제17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한 외국손님들과 재중동포들 도착	
14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14	5	우리 조국은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천만년 빛을 뿌릴 것이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부의장이 강조	
15	5	재중조선인총연합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18	6	조국과 민족앞에 남기신 불멸의 업적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3돐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들 뜻깊게 경축	
20	4	재중조선인총연합회대표단이 떠나갔다	

2015년 5월

일자	면	제목	비고
20	5	반총련책동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성명 발표	
21	6	최악에 최악을 덧쌓는 총련말살책동을 당장 견어치우라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 담화 발표	

2015년 6월

일자	면	제목	비고
6	6	하루빨리 통일번영의 새 아침을 안아오자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중남지구협회 사무장 글 발표	
20	5	6.15 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산하조직들 기념행사 진행,	
23	6	민족의 통일리정표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중남지구협회 담화 발표	

2015년 7월

일자	면	제목	비고
8	2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외국의 단체들과 중 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28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인민군렬사릉원에 화환을 보내 시였다	

2015년 8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3	4	재중조선인총연합회대표단 도착	
22	6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의 전쟁도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	

		릴 것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	--	---------------------	--

2015년 9월

일자	면	제목	비고
3	4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승리 70돛행사에 참가할 우리 대표단 출발	
4	4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승리 70돛행사에 참가하였던 우리 대표단 귀국	
16	4	조선 두 나라 정부사이의 남양-도문 새 국경다리의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2015년 10월

일자	면	제목	비고
5	4	중국공산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에 대하여	
9	5	재중동포대표단들 도착	
10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돛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고 있는 중국공산당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10	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10	9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중국공산당대표단 회담	
10	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중국공산당대표단을 위하여 연회 마련	
10	10	중국공산당대표단 도착	
10	10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 도착	
11	3	조선로동당창건 70돛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우리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11	7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청년전위를 화불행진 <<위대한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 성대히 진행	
11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중국공산당대표단을 만났다	
12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12	5	중국공산당대표단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과 참관	

13	4	중국공산당대표단 귀국	
13	5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회 진행	
26	4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쟁참전 65돐에 즈음하여 우의탑에 화환 진정	

2015년 11월

일자	면	제목	비고
----	---	----	----

2015년 12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2	6	조선만화영화제작 세계적수준 중국텔레비죤방송이 소개	

2016년 1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과 중국항일 혁명렬사 장올화동지의 가족, 외국의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 내여왔다	
8	5	자기운명은 오직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의 진리로 이룩 한 성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 담화발표	
12	6	통일애국의 호소, 통일의 기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담 화 발표	

2016년 2월

일자	면	제목	비고
3	4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 특별대표일행 도착	
5	4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일행 귀국	
15	4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도착	
15	4	제20차 김정일화축전에 참가할 중국손님들과 재중동포들 도착	
16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교 외교단과 무관단, 외국의 단체, 인사들과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올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16	5	태양조선의 억년기틀을 마련하여주시신 희세의 위인 재중조선인 총련합회 부의장이 높이 칭송	
20	4	제20차 김정일화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중국손님들과 재중동포	

		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21	4	중국 길림성교향악단 도착	
21	4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이 떠나갔다	
22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중국 길림성교향악단 경모의 정 표시	
23	6	중국에서 정월대보름 맞이	
24	4	2016년 조중친선봄맞이음악회 진행	
25	4	중국대사관에서 2016년 조중친선봄맞이음악회 마련	

2016년 3월

일자	면	제목	비고
22	6	호전광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규탄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선전국 국장 담화 발표	

2016년 4월

일자	면	제목	비고
8	4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재중조선인예술단 도착	
12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올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13	4	태양절에 즈음하여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의 회고모임 중국에서 진행	
13	5	제18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할 중국손님들과 재중동포들 도착	
21	4	재중조선인예술단이 떠나갔다	
27	4	제4차 중국공개륙상선수권대회-2016년 국제장애자올림픽위원회 그랜드상륙상경기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2016년 5월

일자	면	제목	비고
2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경모의 정 표시	
2	4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도착	
7	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축전을 보내여왔다	
10	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축전	

		을 보내어왔다	
12	2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립니다	
15	4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16	4	걸출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민족의 크나큰 긍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기자와 회견	
18	6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경축하여 재중동포들 꽃바구니진정행사 진행	
21	4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재중조선인 총련합회축하단이 떠나갔다	
24	4	2016년 중국 대북공개륙상경기대회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26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만마, 중국인사가 선물을 드리였다	

2016년 6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3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을 만났다	
1	3	조선로동당대표단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을 위하여 출발	
2	3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만났다	
3	3	조선로동당대표단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을 마치고 귀국	
4	6	민족의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제안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성명 발표	
9	4	중국대사관 성원들 택암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10	6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명시한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대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 발표	
26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회대표단 중국 마카오, 말레이시아방문을 위하여 출발	

2016년 7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8	1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외국의 단체, 인사들과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을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8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중국 마카오, 말레이시아방문을 마치고 귀국	
8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의 회고모임 중국에서 진행	
12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2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12	6	중국군사론평원 미일남조선미싸일정보훈련의 목적을 폭로	
15	4	중국에 가는 사회과학원대표단 출발	
15	6	중국외교부 미국의 싸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	
17	6	중국외교부 대변인 자제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	
20	4	중국에 갔던 사회과학원대표단 귀국	
25	6	중국전문가 남조선에 대한 싸드 배치결정은 작은 나토의 형성을 의미한다고 주장	
29	4	중국인민해방군창건 89돐에 즈음하여 중국대사관 국방무관 연회 마련	
31	6	싸드의 남조선배치책동을 당장 중지하라 싸드배치에 단호한 대응을 주장 중국 군사론평원 인터넷에 글 게재	

2016년 8월

일자	면	제목	비고
6	6	승냥이를 집에 들여놓는 경솔한 행동 중국과 로씨야전문가들 싸드 배치후과에 경고	
14	6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6차대회 진행	
21	6	중국의 신화통신 침략력사를 부정하는 일본을 비난	
22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22	4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대표단 도착	
22	6	중국전문가 싸드 문제해결을 위해 괴뢰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	

2016년 9월

일자	면	제목	비고
9	6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려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책동을 준렬히 단죄한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성명 발표	
10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12	1	선군조선의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드립니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	
12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연합회 경축모임 진행	
13	2	백두산청년강국의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드립니다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대표단 일동	
14	5	특등매국노 박근혜역적을 단호히 징벌하자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목단강지구협회 부회장담화 발표	
18	5	조선의 핵탄두폭발시험은 생태환경에 사소한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로씨야, 중국, 일본의 해당 기관들이 공식확인	
20	4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도착	
22	6	선군조선의 막강한 국력의 과시 재중동포조직들 경축모임 진행	
24	4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귀국	
25	4	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 전람회에 참가할 대표단 대표들 도착	
26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에 참가하는 대표단, 대표들이 선물을 드리였다	
27	4	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개막	
28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중국인사가 선물을 드리였다	
30	7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 중국정부가 지원물자들을 무상기증하기로 결정	

2016년 10월

일자	면	제목	비고
3	4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단 도착	
4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단 꽃바구니 진정	
5	4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단 진행	
5	5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이룩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6	4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단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진행	
9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과 외국의 단체, 인사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9	4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11	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올리는 편지채택모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에서 진행	
12	4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단이 떠나갔다	
25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중국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26	4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6돐에 즈음하여 우의탑에 화환 진정	
26	4	조중국경공동위원회 제3차회의	
28	4	조중국경공동위원회 제3차회의에 참가하였던 중국대표단 귀국	
28	6	남조선인민들의 싸드 배치반대투쟁을 중국, 아르헨띠나의 출판 보도물들 보도	

2016년 11월

일자	면	제목	비고
9	6	미국대통령선거는 권력가들의 란투극 중국방송이 비평	

12	4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여성일군대표단 도착	
22	4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여성일군대표단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23	4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여성일군대표단이 떠나갔다	
25	2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재중조선여성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립니다	
29	4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68차 회의에 참가할 우리측 대표단 출발	
30	6	중국전문가 단말마적발악을 하는 박근혜역도를 단죄	

2016년 12월

일자	면	제목	비고
4	6	청와대에서 즉시 물러나야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 협회 사무장 글 발표	
6	4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68차 회의에 참가하였던 우리측 대표단 귀국	
8	5	재중동포와 중국박사원생에게 언어학박사학위 수여	
10	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일행 경모의 정 표시	
10	4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가족일행 도착	
16	6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의 회고모임 중국에서 진행	
17	4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대표단 도착	
19	4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19	6	자애로운 아버지, 인간애의 최고화신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후보중의 딸 걱정 토로	
20	4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이 떠나갔다	
20	6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 중국잡지, 이란신문 특집	
20	6	10년제재로 조선의 핵보유질주를 멈추지 못하였다	
21	4	재중동포대표단들이 떠나갔다	
25	6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일행 귀국	

2017년 1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5	우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드립니다	
3	6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로씨야, 중국에서 진행	
12	6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 해나갈 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담화 발표	

17	6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정세악화의 근원이다 중 국의 대중보도수단들 비난	
28	6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총결기 할 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성명 발표	

2017년 2월

일자	면	제목	비고
4	6	중국인민의 투쟁을 사심없이 도와주신 김일성동지 중국 인민일보 해외망의 글	
7	6	중국 남조선에 대한 싸드 배치중지를 요구	
9	4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	
10	4	조중친선봄맞이음악회 진행	
12	4	제21차 김정일화축전에 참가할 외국손님들과 재중동포들 도착	
14	6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리고 있는 흥용표를 단죄규탄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15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후보중의 딸 주위가족, 공화국영웅 안 동수유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15	5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올리 는 축전채택모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에서 진행	
15	5	재중동포축하단, 대표단들 도착	
16	3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 중 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2017년 3월

일자	면	제목	비고
1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표단 중국을 방문하기 위하 여 출발	
3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표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 교부 일군들을 만났다	
5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표단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	
6	6	싸드배치의 중지를 요구	
13	5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침략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발표	
15	5	정의의 힘, 단결의 힘으로 통일의 새봄을 기어이 안아오자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선전국 국장담화 발표	

15	5	재중동포단체 북침핵전쟁연습을 규탄하는 집회진행	
17	6	중국 출판보도물 짜드배치를 통한 미국의 전략적목적 폭로	
19	6	신성한 조국강토는 외세의 전쟁연습터로 될 수 없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담화 발표	
20	1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행사준비위원회 결성	
24	6	군사광국, 우주강국의 한성원이라는 화희와 민족적자부심이 넘 쳐난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위원장 담화발표	
25	6	조선반도정세격화의 근원은 미국에 있다 중국과 로씨야출판보도물, 전문가들이 주장	
28	6	트럼프 미행정부는 대조선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 담화 발표	
29	5	반박근해초불시위투쟁의 승리는 남조선사회변혁의 출발점이 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대변인 대화 발표	
30	6	북남공동선언들의 실천을 이끌어낼 때까지 역세계투쟁해나가 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 담화 발표	

2017년 4월

일자	면	제목	비고
6	6	2016년 미국의 인권기록(1)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발표	
7	6	중국의외교부 대변인 미국의 짜드 배치채동 규탄	
8	6	정의의 해불로 최후발악하는 친미보수패당을 불태워버리자 재 중조선경제인련합회 성명 발표	
8	6	2016년 미국의 인권기록(2)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발표	
10	5	근로대중이 주인된 새 사회, 참다운 세상을 만드시 안아오자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선전국 부국장이 강조	
11	4	태양절경 경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사진 및 미술전 람회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	
11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가족일행들과 해외동포대표단 들 경모의 정 표시	
11	5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가족일행들, 해외동포대표단들 도착	
11	6	2016년 미국의 인권기록(3)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발표	
12	8	제19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할 외국손님들과 재중동포들 도착	
13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재중동포에게 수여	

13	6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도착	
13	6	제19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할 중국손님들과 재중동포들 도착	
14	4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조외교단과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장울화가족일행,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14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외국손님들과 재중동포들 꽃바구니 진정	
15	2	우리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드립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국길림	
17	5	김일성대원수님은 위인주의 위인, 성인중의 대성인이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강조	
18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과 메히꼬로동당대표단을 만났다	
19	6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장울화의 아들이 높이 칭송,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최고화신	
20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 경축행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진행	
21	1	우리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드립니다	
21	6	2016년 미국의 인권기록(4)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발표	
22	4	제19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였던 외국손님들과 재중동포들이 떠나갔다	
24	5	미국과 괴뢰들은 전쟁도발소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 담화 발표	
25	6	최후의 승리는 결사의 각오로 반미대결전에 펼쳐나선 조선인민의 것이다 재중조선인청년협합회 위원장 담화 발표	
29	6	조선인민에게 핵참화를 들뜨우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로호전광들을 단호히 단죄규탄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대변인 담화 발표	
30	4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일행 귀국	
30	6	조국의 청년대군과 어깨결고 반미대결전의 앞장에서 나아갈 것이다. 재중조선인청년협합회 대변인이 담화 발표	

2017년 5월

일자	면	제목	비고
3	6	불멸의 꽃전시회 중국, 기네에서 진행	
4	6	조중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14	4	중국에 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출발 (일대일로 회의에 참석)	
16	5	재중동포단체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테로흉계를 규탄	
19	5	중국에 갔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귀국	
23	6	괴뢰보수당들을 깨끗이 쓸어버리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 담화 발표	
25	5	박근혜일당을 깨끗이 쓸어버리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대변인 담화 발표	
25	5	괴뢰보수패당이 되살아나지 못하게 력사의 철추를 안겨야 한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대변인 담화발표	
29	5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여 성명 발표 공화국의 위력을 과시한 또 하나의 사변	

2017년 6월 23일까지

일자	면	제목	비고
18	6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재결의를 조작해낸 적대세력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성명발표	
20	5	싸드를 철수시켜 미국들의 핵대결로부터 민족의 보금자리를 지키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성명발표	